

# 표상으로서의 스포츠 : ‘朝滿對抗競技大會’ 를 사례로

李東振 경북대학교

## I. 서론

근대 스포츠는 19세기 후반에 유럽에서 발전해서 전 세계로 보급되었다. 이 과정에서 각종 대항경기 대회가 중요한 역할을 했다. 먼저 학교대항경기대회를 통해서 경기 종목과 규칙이 제정되고, 선수와 관중이 형성된 후에, 다시 지역 또는 직장 대항경기대회, 마지막으로 올림픽으로 대표되는 국가대항경기 대회로 발전하면서, 경기 종목과 규칙이 통일되고, 선수와 관중이 확산되었다. 그런데 각종 대항경기대회는 그 대회에 참가하는 선수들이 각각 어떤 공동체의 대표 자격으로 참가하게 되는 바, 곧 운동장에서 선수 간에 벌어지는 경기가 그 선수가 대표하는 공동체 간에 벌어지는 경기를 표상하게 된다. 이에 관중은 단순히 경기를 관람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공동체를 대표하는 선수를 응원하는 응원단이 되고, 이 선수단과 응원단이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게 된다. 이 공동체는 다시 매체를 통해서 운동장 바깥으로까지 확산되어 간다.

이렇게 하여 대항경기대회에서의 성적이 각 선수단이 표상하는 바로 그 공동체의 성적을 표상하는 효과를 가지게 된다. 특히 기록 경기대회인 경우에는 대회 신기록, 국가 신기록, 세계 신기록이라는 위계 서열을 통해 각 스포츠 공동체의 순위가 매겨진다. 이 순위는 그 공동체의 스포츠 분야에서의 순위일 뿐이지만, 스포츠가 공동체를 표상하는 직접성으로 인해서 순간적으로는 공동체 전체의 순위로 전치되기도 한다. 이것이 스포츠가 자주 정치화되는 이유이다.

이와 같이 스포츠가 공동체를 표상한다고 할 때 국가를 상실하고 식민지로 된 민족에게 스포츠는 더욱 각별하였다. 이들에게 스포츠야말로 국가를 통해서 표상되지 못하는 민족을 표상해 줄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식민지 민족이 스포츠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다고 하면 그 민족의 우수성을 만방에 떨칠 수도 있었다. 이것이 1930년대 식민지 조선에서 스포츠 열기가 일어났던 배경이었다.

그런데 스포츠 열기는 만주의 조선인에게서도 나타났다. 조선 내지의 조선인과 달리 이산자인 만주의 조선인으로서 스포츠에서의 성적이야말로 자신의 공동체를 표상해 주는 거의 유일한 지표 구실을 했다. 만주의 조선인은 조선인 선수와 관중으로 이루어지는 스포츠 공동체를 통해서 자신의 공동체 자체를 확인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조선인 선수의 성적을 통해 자신의 공동체의 스포츠에서의 순위까지 확인할 수 있었고, 이 순위는 앞서도 말했듯이 그 직접성으로 인해서 자주 공동체 자체의 순위로 표상되었다. 이것이 1930년대 만주의 조선인에게서 스포츠 열기가 일어났던 배경이었다.

이 글에서는 조선과 만주의 조선인에게 일어난 스포츠 열기를 배경으로 해서, 조선인 선수의 성적이

높게 나타난 사실을 조선과 만주간의 대항경기대회(이하 조만대항경기대회)를 사례로 해서 살펴보고자 한다.<sup>1)</sup> 먼저 1924년부터 1940년까지 3개의 다른 명칭으로 모두 11회 개최된 조만대항경기대회에 관한 신문의 보도 기사를 자료로 해서 조선인 선수의 성적을 살펴볼 것이다. 대한체육회에서 발간한 자료에는 조선인 선수의 성적만 기재되어 있다. 그런데 이 조선인 선수들 중에는 극소수이지만 만주팀의 선수도 포함되어 있었다. 위 자료는 이를 구분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만주팀 조선인 선수의 성적이 누락된 경우도 있으며,<sup>2)</sup> 조선인 선수의 성적이 신문 기사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sup>3)</sup> 이 글에서는 모든 경기 종목에서의 각 민족별 선수의 성적을 기재하여, 조선인 선수가 다른 민족 선수에 비해서 어느 정도의 성적을 거두었는가를 살펴볼 것이다.<sup>4)</sup>

신문 기사는 또한 임원단과 선수단의 일정, 식전행사를 위시한 부대행사 등도 보도하였다. 이는 대회가 경기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시사한다. 선수단의 일정이나 식전 행사 등도 대회의 일부를 구성하였으며 따라서 보도할 가치가 있었다. 조선인 독자로서는 어떤 점에서는 운동장 안보다 운동장 바깥에서의 조선인 선수가 더 중요하였을 수도 있으며, 신문을 발간하거나 검열하는 국가로서도 그러하였다.

조만대항경기대회가 하나의 표상이라고 할 때 그것이 무엇을 표상하는가를 둘러싸고 운동장의 안과 밖에서 또 하나의 경기가 벌어졌다. 이 글에서는 이 또 하나의 경기에 대해서도 신문 기사를 자료로 해서 살펴볼 수밖에 없었다. 이는 잘못된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신문은 국가가 발간 또는 검열을 하지만 국가가 강제로 독자에게 구독하게 할 수는 없다는 점에서, 국가와 신문 독자 간의 경기가 벌어지는 또 하나의 경기라고 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이 또 하나의 경기는 운동장 안의 경기와 이어져 있었다. 왜냐하면 조선인 선수의 성적은 조선인 관중의 응원 덕분이고 조선인 관중의 응원은 다시 조선인 선수의 성적이 표상하는 바로 그 공동체 덕분이기 때문이었다. 곧 조선인 선수의 성적을 떠받치는 것은 바로 조선인 스포츠 공동체였고 이 조선인 스포츠 공동체는 스포츠가 바로 그 공동체, 곧 민족을 표상하기 때문에 형성될 수 있었다. 이 과정에서 신문은 다만 보도자에 머문 것이 아니라 조직자이기도 했다. 곧 운동장에서 스포츠가 한 표상은 다시 신문을 통해서 표상되었다.

이 글에서는 스포츠 가운데서도 주로 육상을 사례로 하여 살펴보았다. 이 시기에 조선인 선수가 가장 높은 성적을 거둔 종목이 육상, 특히 마라톤이었다. 오늘날 육상은 더 이상 스포츠의 꽃이 아니지만 1930년대에 조선과 일본에서 육상은 가장 인기 있는 스포츠였다.<sup>5)</sup> 이 글에서 다루게 될 조만대항

1) 대회 명칭을 민족(한글) 신문은 '조만, 조선총독부기관지(일본어)로 조선인과 일본인을 모두 대상으로 하는 『每日新報』는 '선만', 일본인 신문인 『京城日報』는 '선만' 또는 '만선', 나중의 일이지만 만주에서 발행된 민족(한글) 신문인 『滿鮮日報』는 '만선'이라고 불렀다.

2) 대한체육회가 발행한 책에서는 만주팀에 속하는 조선인 선수를 구분하지 않아서 이들이 흡사 조선팀에 속하였을 것으로 오해하게 할 소지도 있었다. 조선인 선수로 누락된 부분의 예로는 제2회 조만종합경기대회에서 윤경호는 기재하면서도, 방경하는 누락하였다. 대한체육회, 『대한체육회사』(1965), 670쪽. 이는 아마도 방경하를 중국인으로 간주하였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사실 성만으로 보면 방경하가 조선인인지 중국인인지 구분이 가지 않는다.

3) 신문 기사도 '오보'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공식 기록을 확인할 수 없는 상황에서의 1차 자료이고, 운동장에서 직접 경기를 관람하지 못한 조선인들로서는 이 신문 기사를 읽고 조선인 선수의 성적을 알 수 있었다는 점에서 신문에서 보도한 조선인 선수의 성적이야말로 이 글에서 말하는 '조선인 선수의 성적'과 부합한다.

4) 그런데 당시의 신문이 현재 축재본으로 밖에 볼 수가 없어서 글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이에 대한체육회가 발행한 책에서의 조선인 선수의 명단과 대조해서 살펴볼 것이다.

경기대회는 1924년에 육상대항경기대회로 시작되었다가 중일전쟁이 발생한 다음 해에야 종합경기대회로 발전되었다. 종합대항경기대회에서도 육상이 가장 중요한 종목이었다.

## II. 조만대항육상경기대회

### 1. 제1회 조만대항육상경기대회

1924년에 각각 조선과 만주(조차지인 관동주와 남만주철도부속지)의 일본인 체육단체인 조선체육협회와 만주체육협회가 주최하는 조만대항육상경기대회가 처음 열렸다.<sup>6)</sup> 대회는 8월 15일(금요일)부터 3일간 대련 복견대(伏見台)운동장에서 개최되었다. 경기 일정과 조선인 선수의 성적을 보면 다음과 같았다(괄호가 없는 경우는 모두 일본인이다. 이하 같다).

〈표 1〉 제1회 조만육상경기대회 조선인 선수 성적

경기일(시간)	종목	1등	2등	3등	4등	성적	우승(성적)
제1일 (오후 3시 30분 입장식-6시 30분)	장대높이뛰기	만주	조선	조선	만주		만주 (6.5 대 5.5)
	5000미터	조선	조선	조선 (강찬격)	조선 (문범해)		
제2일 (오후 3시 30분-6시 10분)	200미터허들	조선	조선	조선 (조선인)	조선 (조선인)		만주 (40.5 대 28.5)
	100미터	만주	만주	만주	만주		
	원반던지기	만주	조선			7 대 4	
	1500미터	만주	조선	조선		6 대 5	
	멀리뛰기	만주, 조선	만주	만주	만주	7 대 4	
	1600미터계주	만주					
제3일 (오전 9시)	110미터고허들	조선	만주	조선	조선 (김환민)		만주 (110.6 대 71.3)
	포환던지기	만주	만주	만주			
	삼단뛰기	조선	만주	조선			

5) "조선 반도에서나 일본에서나 스포츠에 대한 열의가 대단하던 때였다. 특히 육상은 어디서나 가장 기본적이고 인기 있는 종목으로 각광을 받았다." "1932년 로스앤젤레스 올림픽도전은 6위 입상에 그쳤지만 이때를 전후해서 육상종목은 조선 내에서 모든 스포츠 종목 가운데서 가장 큰 관심을 끄는 인기 종목이 되었다. 어느 체육대회에서나 육상은 가장 중요한 빅 이벤트로 이목을 집중시켰고 마라톤이나 역전 경주등 육상 단일 종목 대회도 크게 인기를 끌었다. 웬만한 대회면 육상경기장을 가득 메울 만큼 인파가 몰려 들었다." 손기성, 『나의 조국 나의 마라톤』 (한국일보출판국, 1983), 94쪽.

6) 대한체육회가 발행한 책에서는 조선체육회와 만주체육회가 주최하였다고 하였다. 대한체육회, 『대한체육회사』 (1965), 668쪽.

〈표 1〉 제1회 조만육상경기대회 조선인 선수 성적(계속)

경기일(시간)	종목	1등	2등	3등	4등	성적	우승(성적)
제3일 (오전 9시)	400미터	만주	만주	만주			만주 (110.6 대 71.3)
	200미터저허들	조선	만주	만주			
	200미터	만주	만주	만주			
	창던지기	만주	조선	만주			
	10마일	조선	조선	만주	조선 (조선인)		
	높이뛰기	만주	조선	조선			
	800미터계주	만주					
	5종경기	만주	만주	조선			

출전: 『每日新報』, 1924년 8월 17일자, 18일자, 19일자, 각 3면; 『京城日報』, 8월 18일, 2면; 대한체육회, 『대한체육회사』 (1965), 668쪽.

주: 각 종목 결승점수는 1등 5점, 2등 3점, 3등 2점, 4등 1점이었다(이하 같다).

조선팀은 경기 첫째날에 400미터 예선에서 모두 탈락하였고, 둘째날에 1500미터달리기에 1명(조선인)이, 1600미터계주에서 3명이 병으로, 마지막날에는 8명이 병으로 기권했다. 이는 원정경기의 불리함을 나타낸다. 이렇게 하여 만주팀이 종합 성적 110.6점 대 71.3점으로 우승기와 경일(京日)의 컵을 차지하였다.

경기에 참가한 선수를 보면 만주팀은 모두 일본인이었고 조선팀은 대부분의 일본인과 소수의 조선인이 있었다. 조선인 선수는 5000미터 3등, 4등, 200미터저허들 3등, 4등, 110미터고허들 4등, 10마일달리기 4등에 그쳤다. 이들 조선인 선수는 경기장에서 고독한 존재였다. 개막식에 등장하는 대련 시장, 심판장, 주장이 모두 일본인이었고 아마도 관중도 대부분 일본인이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 대회의 후원자는 우승컵을 제공해 준 데서 알 수 있듯이 조선에서 일본인 독자를 대상으로 신문을 발행하던 경성일보사였다.<sup>8)</sup>

## 2. 제2회 전경성전만철대항육상경기대회

제2회 조만대항육상경기대회가 1926년 8월 22일에 경성운동장에서 개최되었다. 지난 대회에 이어 다시 만주팀이 종합 성적 77점 대 25점으로 우승기를 가져갔다. 이 대회에서 조선인 선수의 성적을 보면, 높이뛰기 2등(김영락), 장대높이뛰기 3등(민태식), 5000미터달리기 2등(강찬격), 3등(문판개), 원반던지기

7) 첫째날에는 100미터, 800미터, 1500미터, 400미터, 110미터고허들, 200미터, 둘째날에는 200미터저허들 예선 경기를 치렀다.

8) 경성일보사는 또 다른 일본어 신문을 발행하던 조선신문사와 경쟁 관계에 있었다. 체육대회를 주최하거나 후원한 것도 이러한 경쟁의 일환이었다.

기 2등(유약한)을 차지하였다.<sup>9)</sup> 지난 대회에서는 3등과 4등에 그쳤던 조선인 선수의 성적이 2등으로 향상되기는 했지만, 아직 이 대회는 조선인 관중의 관심을 끌지는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한 예로 민족신문인 동아일보를 보면 본사주최 클럽야구연맹전을 대대적으로 보도하면서도 이 대회는 보도조차 하지 않았다.

조만대항육상경기대회는 이후 한동안 중단되고, 대신에 1931년에 경성육상경기연맹과 만철육상경기협회가 주최하는 전경성전만철대항육상경기대회가 개최되었다.<sup>10)</sup> 제1회 대회는 1931년 8월 23일에 봉천국제운동장에서 개최되었다. 이 대회에서는 경성팀이 종합 성적 75.5점 대 67.5점으로 승리를 거두었다. 이 대회에서 조선팀의 조선인 선수는 1500미터 2등(김은배), 5000미터 1등(김은배), 3등(최경락), 포환던지기 3등(이준갑), 4등(유약한), 원반던지기 1등(유약한), 창던지기 4등(유약한), 높이뛰기 4등(유약한)을 차지하였다.<sup>11)</sup> 이 대회에서 드디어 조선인 선수가 두 종목에서 1등을 차지하였다.

제2회 대회는 1932년 9월 4일에 경성운동장에서 개최되었다. 이 대회에서의 조선인 선수의 성적은 다음과 같았다.

〈표 2〉 제2회 전경성전만철대항육상경기대회 성적

종목	1등	2등	3등	4등	득점	
					경성	만철
800미터	경성	경성	만철	만철	7	3
포환던지기	만철	경성(유약한)	경성	경성	6	4
100미터	경성	만철	만철	경성	5	5
고장애물	경성(김환민)	경성	만철	만철	7	3
창던지기	경성(유약한)	만철	만철	만철	6	4
1500미터	경성(백규복)	만철	만철	만철	4	6
400미터	경성	경성	만철	경성(조선인)		
멀리뛰기	경성	만철	경성	만철	6	4
원반던지기	경성(유약한)	경성	만철	만철	7	3
200미터	경성	만철	경성	만철	6	4
높이뛰기	경성	만철	경성(유약한)	경성	7	3
중장애물	경성(김환민)	경성	만철	만철	7	3
장대높이뛰기	만철	경성	경성		5	4
5000미터	경성(손기정)	만철	경성(백규복)	만철	6	4
스웨덴계주	경성					

출전: 『每日新報』, 1932년 9월 5일자, 2면, 9월 6일자, 7면; 대한체육회, 전게서, 669쪽.

9) 대한체육회, 전게서, 668쪽.

10) 『每日新報』, 1934년 10월 16일자, 6면.

11) 대한체육회, 전게서, 669쪽.

이 대회에서는 경성팀이 포환던지기, 장대높이뛰기를 제외한 모든 종목을 제패하였다. 그리고 제주를 제외한 개인 종목 14개 가운데서 조선인 선수가 6개 종목에서 1등을 차지하였다. 특히 유약한은 2개 종목에서 1등, 그리고 다른 2개 종목에서 각각 2등과 3등을 차지하였고, 미래의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인 손기정이 5000미터에서 1등을 차지하였다. 이번에는 총독부 기관지이고 일본어 신문이기는 하지만 조선인 독자를 대상으로 발행되었던 每日新報가 조선인 선수들의 활약을 톱기사로 보도하였다.<sup>12)</sup>

### 3. 제3회 전경성전만철육상대항경기대회

제3회 전경성전만철육상대항경기대회는 1933년 9월 10일에 대련에서 개최되었다. 각 종목에서의 조선인 선수의 성적은 다음과 같았다.

〈표 3〉 제3회 조만대항육상경기대회 조선인 선수 성적

종목	1등	2등	3등	4등
800미터달리기	만주(대련)	만주(안동, 김기현)	조선(조선철도)	만주(대련, 권태하)
포환던지기	조선(조선철도)	조선(조선철도, 유약한), 만주(대련)	만주(대련)	
100미터달리기	조선(조선철도)	조선(조선총독부)	만주(대련)	조선(조선육상클럽)
110미터고장애물	만주(무순)	조선(조선육상클럽, 김환민)	조선(조선육상클럽)	만주(봉천, 중국인)
창던지기	만주(무순)	조선(유약한)	만주(대련)	만주(안동)
1500미터달리기	만주(대련)	조선(조선총독부, 변용환)	만주(봉천)	조선(조선철도, 조선인)
멀리뛰기	만주(대련)	만주(봉천)	조선(조선총독부)	만주(봉천)
400미터달리기	조선(조선철도)	조선(조선육상클럽)	만주(대련)	
원반던지기	조선(유약한)	조선(조선철도)	만주(무순)	만주(여순)
높이뛰기	만주(대련)	조선(합남), 만주(봉천, 중국인)	만주(봉천)	
200미터달리기	조선(조선철도)	조선(조선육상클럽)	조선(조선총독부)	만주(대련)
장대높이뛰기	만주(대련), 조선(조선철도)	만주(봉천)	조선(조선총독부)	
400미터중장애물	조선(김환민)	조선(조선철도)	조선(조선철도)	조선(조선철도)
5000미터달리기	조선(변용환)	만주(대련)	만주(대련)	만주(봉천)
1000미터스웨덴계주	조선(김장울)	만주		

출전: 『每日新報』, 1933년 9월 12일자, 7면.

주: 조선총독부는 원문은 본부이다.

12) 제1회 대회의 경우에는 『每日新報』는 자사가 주최하는 제8회 전조선야구쟁패대회를 보도한 반면에, 전경성전만철대항육상경기대회에 대해서는 보도를 하지 않았다(1931년 8월 24일자, 2면).

이 대회에서 창던지기 1등, 멀리뛰기 1등은 만주신기록을, 200미터 1등은 일본신기록(21.2초)을 기록하였다. 200미터 1등을 차지한 선수는 西直一이었는데 또한 100미터에서도 1등을 차지했다. 이 대회에서 다시 경성팀이 종합 성적 75점 대 68점으로 승리를 거두었다. 이로써 경성팀이 3년 연속 우승을 차지하게 되었다. 조선팀의 조선인 선수가 4개 종목에서 1등(한명은 계주 참가)과 2등을, 1개 종목에서 4등을 차지하였다. 이 대회에서는 드디어 만주팀(만철팀)에도 조선인 선수가 등장하였다. 1500미터 달리기에서 2등을 차지한 김기현과 4등을 차지한 권태하가 그들이었다. 권태하는 1932년 로스앤젤레스 올림픽 마라톤에서 9위를 차지한 후에 만철에 입사한 경우였다.

#### 4. 제4회 전경성전만철육상대항경기대회

제4회 대회는 1934년 10월 14일 경성운동장에서 개최되었다. 이 대회에서의 조선인 선수가 거둔 성적은 다음과 같았다.<sup>13)</sup>

〈표 4〉 제4회 전경성전만철육상경기대회 조선인 선수 성적

종목	1등	2등	3등	4등
100미터달리기	만주	만주	조선(이을형)	만주
200미터달리기	만주	만주	조선(한철호)	조선(조선인)
400미터달리기	만주	만주	조선	조선(조선인)
800미터달리기	만주	만주(김기현)	조선(백규복)	조선(손기정)
1500미터달리기	만주	조선(손기정)	조선(유장춘)	조선(백규복)
5000미터달리기	만주	조선(손기정)	조선(유장춘)	조선(백규복)
고장애물	만주	조선	만주	만주
중장애물	만주	만주	조선	조선
스웨덴계주	만주	조선(조선인 2명)		
멀리뛰기	만주	만주	조선	조선
높이뛰기	만주	조선	만주	만주
장대높이뛰기	만주	만주	만주	조선
포환던지기	만주	만주	조선(고석의)	조선
창던지기	조선(유약한)	조선, 조선		만주
원반던지기	조선(유약한)	만주	만주	조선

출전: 『每日新報』, 1934년 10월 16일자, 6면; 대한체육회, 전게서, 669쪽.

13) 멀리뛰기 4등과 높이뛰기 4등은 동일인인데 조선팀과 만주팀으로 되어 있다. 每日新報에는 100미터 3등에 한철호, 대한체육회가 발행한 책에서는 800미터 3등에 손기정으로 나온다.

100미터, 200미터, 400미터 1등은 조선철도에서 만철로 전근을 온 일본인 西直一, 800미터, 1500미터, 5000미터 1등은 일본인 福田이었다. 창던지기와 원반던지기를 제외한 모든 종목의 1등은 만철팀이 차지했다. 조선팀 선수들로는 창던지기와 원반던지기 2관왕인 유약한을 비롯한 조선인 선수의 성적이 좋았다. 이 대회에서는 만주팀이 종합 성적 89.83점 대 55.16점으로 승리를 거두었다.<sup>14)</sup>

### 5. 제3회 조만대항육상경기대회

1935년에는 드디어 조만대항육상경기대회가 속개되어 제3회 대회가 8월 25일 대련운동장에서 개최되었다. 이 대회에서 조선인 선수의 성적은 다음과 같았다.<sup>15)</sup>

〈표 5〉 제3회 조만대항육상경기대회 조선인 선수 성적

종목	1등	2등	3등	4등
800미터	만주	조선(조선인)	조선(조선인)	만주
200미터	만주	조선(한철호)	만주	조선
400미터	만주(중국인)	만주	만주	조선(김인식)
100미터	만주	조선(한철호)	만주(중국인)	만주
고장애물	만주	조선(김환민)	조선	만주
1500미터	조선(지영룡)	조선(조선인)	만주	만주(권태하)
400미터장애물	만주	만주	조선	조선(조선인)
5000미터	조선(문윤선)	조선(유장춘)	만주	만주
1000미터계주	만주	조선		
원반던지기	조선(유약한)	만주	조선	만주
장대높이뛰기	만주	만주	조선	조선
멀리뛰기	만주	만주(중국인)	만주	조선(한정호)
창던지기	만주	만주	만주	조선
포환던지기	만주	조선	만주	만주
높이뛰기	만주	만주	만주	조선
3단뛰기	만주	조선(배준환)	만주	조선
햄머던지기	만주	만주	만주	조선

출전: 『조선중앙일보』, 1935년 8월 28일, 2면; 대한체육회, 전게서, 668쪽.

14) 대한체육회가 발행한 책에서는 총점을 89.6분지 5 대 55.6분지 1로 기록하고 있다.

15) 대한체육회가 발행한 책에서는 100미터 1등을 한철호, 400미터 2등을 이상영, 3등을 이정근, 1500미터 3등을 지영룡이라고 했다. 대한체육회, 전게서, 668쪽.

이 대회에서는 햄머던지기 1등(白石)이 만주신기록을 수립하였다. 만주팀이 종합 성적 106점 대 57점으로 승리를 거두었다. 만주팀이 1등을 놓친 세 종목은 조선인 선수가 모두 1등을 차지했고, 조선팀이 2등을 차지한 9개 종목 가운데서 2개 종목(1000미터 계주 포함)을 제외하고는 모두 조선인 선수가 차지하였다.

이 시기에 육상 종목에서 조선팀의 조선인 선수의 활약이 두드러졌던 것은 양정고보 육상팀이 전성기를 맞이한 것과 맞물린다. 마라톤의 김은배(로스앤젤레스 올림픽 6위), 강찬격, 이을형, 손기정, 남승룡 등을 배출한 양정고보가 이 해에 270개 중등학교(선수는 790명)가 참가하는 제21회 전일본중등육상경기 선수권대회에서 2연패를 차지하였다.<sup>16)</sup>

## 6. 제4회 조만대항육상경기대회

제4회 조만대항육상경기대회가 1936년 8월 23일 경성운동장에서 개최되었다.<sup>17)</sup> 이 대회에서의 조선인 선수의 성적은 다음과 같았다.

〈표 6〉 제4회 조만대항육상경기대회 조선인 선수 성적

종목	1등	2등	3등	4등
800미터	만주	조선	만주	조선
장대높이뛰기	조선	만주	조선	만주
400미터	만주	만주	만주	조선
원반던지기	조선(유약한)	만주	조선(조선인)	조선(조선인)
100미터	조선	조선	만주	만주
포환던지기	만주	만주		만주
멀리뛰기	조선	조선	만주	만주
1500미터	조선(유장춘)	만주	조선(오동우)	조선
고장애물	만주	조선(이장완)	만주	조선
햄머던지기	만주	조선(안영식)	만주	만주
3단뛰기	만주	조선	만주	만주
높이뛰기	조선	만주	만주	조선
창던지기	만주	조선	만주	조선
중간 장애물 경기	만주	만주	만주	조선(조선인)
200미터	만주	만주	조선	만주
5000미터	조선(유장춘)	조선(오동우)	조선(최준근), 만주	
스웨덴계주	만주	조선(조선인 1명)		

출처: 『每日新報』, 1936년 8월 25일자, 7면.

16) 『每日新報』, 1935년 8월 27일자, 2면. 1935년 양정고부육상팀이 귀국하였을 때, 고려육상경기협회가 명월관에서 환영회를 개최하였다. 『每日新報』, 1935년 9월 1일자, 5면.

17) 대한체육회, 전계서, 668-671쪽.

조선인 선수는 3개 종목에서 각각 1등과 2등을 차지하였다. 만주팀이 종합 성적 93.3분지 1점 대 71.3분지 2점으로 다시 승리를 거둔 결과 제4회 전경성전만철대학육상경기대회 이래 만주팀이 3연승을 거두게 되었다.<sup>18)</sup>

### III. 조만대항종합경기대회

#### 1. 제1회 대회

1937년 12월에 만주국에서 일본인의 치외법권이 철폐됨에 따라 만주국의 일본인 선수도 만주체육연맹(공식 명칭은 대만주제국체육연맹)에 가입하기로 했다.<sup>19)</sup> 이에 종래 만주체육협회가 운영하던 조만대항육상경기대회도 만주체육연맹이 계승하게 되었다. 같은 해에 조선에서도 조선인 체육단체인 조선체육회가 일본인 체육단체인 조선체육협회에 흡수되었다. 이렇게 하여 만주체육연맹과 조선체육협회가 새로운 협정을 체결하여 조만대항육상경기대회를 조만대항종합경기대회로 발전시키기로 했다.

제1회 조만대항종합경기대회는 봉천과 신경에서 나누어서 개최하였다. 봉천대회는 8월 21일에 전만주와 전조선의 대항육상경기대회로서 개최되었지만 실제로는 조선팀과 만철팀간의 경기로 진행되었다. 이 대회에서의 조선인 선수의 성적은 다음과 같았다.

〈표 7〉 제1회 조만대항종합경기대회(봉천대회) 육상 종목 조선인 선수 성적

종목	1등	2등	3등	4등
800미터	조선	조선	조선	조선
장대높이뛰기	만철	만철	조선	만철
100미터	조선(김유탉)	조선(한운섭)	만철	조선
원반던지기	만철(러시아인)	조선(조선인)	조선(조선인)	조선(조선인)
100미터고장애물	조선(이장완)	조선	만철	조선
멀리뛰기	조선(김원권)	조선(조선인)	조선	만철
1500미터	만철	조선	조선(조선인)	조선(조선인)
포환던지기	만철(러시아인)	만철	조선	조선
400미터	조선(이경희)	조선	만철	조선
높이뛰기	조선(조선인), 만철, 만철	조선, 만철		

18) 대회가 개최되고 있던 23일과 24일에는 교토제대팀과 경철팀 간에 대항야구전이 개최되었다. 이 경기는 매일신보사와 경성일보사가 주최하였고 조선체육협회가 후원하였다. 『每日新報』 8월 22일자, 3면.

19) 일본체육연맹과 만주체육연맹이 <운동경기자통제협정서>를 체결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였다. 만주에 거주하는 일본인선수는 만주체육연맹의 통제 하에 두며, 관동주내의 일본인(관동주체육협회)은 일본체육연맹 각 운동 단체의 통제 하에 둔다. 만주국내의 운동경기에 참가하는 일본인은 만주국선수의 자격으로 참가하나 국제경기에 참가할 때는 별도로 규정한다. 북경대학조선문화연구소, 전게서, 18쪽. 이 협정에는 또한 “만주국에 있는 일본인이 경기에 참가하면 우대해 준다”는 규정이 있었다. 이에 따라서 일본인이 중국인보다 성적이 못한 경우에도 만주국 대표로 선발될 수 있었다.

<표 7> 제1회 조만대항종합경기대회(봉천대회) 육상 종목 조선인 선수 성적(계속)

종목	1등	2등	3등	4등
창던지기	만철	만철	조선	만주
200미터	조선(김유태)	조선(한운섭)	만철	조선
3단뛰기	조선(김원권)	조선	만철	만철
증장애물	만철	만철	만철	조선
5000미터	조선(최준근)	조선(오동우)	조선(양임득)	만철
스웨덴계주	조선(조선인 3명)	만철		

출전: 『每日新報』, 1938년 8월 23일자, 2면; 대한체육회, 전제서, 670쪽.

조선인 선수는 8개 종목에서 1등을, 5개 종목에서 2등을 차지하였다. 조선팀이 종합 성적 82.5점 대 62.5점으로 승리를 거둔 것은 조선인 선수의 활약에 힘입은 것이었다. 이 무렵 만주국에서 조선인 육상 선수들이 맹활약을 펼치고 있었지만 이 대회에 참가한 만주팀이 만철 직원으로 구성된 탓에 조선인 선수가 거의 참가하지 못하였다. 다른 자료에 의하면 만철팀의 장성현 선수가 400미터 허들에서 1등을 차지했다고 한다. 장성현(관동주 대표)은 1936년 만주국 육상 최우수 선수 명단에 5종경기 1등으로 올랐다.<sup>20)</sup>

신경대회는 우천으로 하루씩 연기되어 8월 28일과 29일 이틀간에 걸쳐 남령경기장에서 개최되었다. 신경대회는 수영, 테니스, 정구 세 종목을 겨루었다. 수영 경기는 28일 오후 1시 30분에 대동공원에서 시작했는데, 만주팀은 모두 일본인으로만 구성되었지만 조선팀에는 조선인 선수도 참가하였다. 수영 종목에서의 조선인 선수의 성적은 다음과 같았다.

<표 8> 제1회 선만대항종합경기대회 수영 종목 조선인 선수 성적

종목	1등	2등	3등	4등	5등	6등
300미터 릴레이	만주	조선(조선인 1명)				
1500미터 자유형	만주	만주	조선(지광호)	조선	만주	조선
200미터 자유형	만주	만주	조선	조선	조선(정안경)	만주
100미터 배영	만주	조선	조선	조선	만주	만주
200미터 계영	만주	조선(정안경)				
400미터 자유형	만주	만주	조선(지광호)	만주	조선	조선
100미터 자유형	조선	만주	조선	만주	조선(정안경)	만주
200미터 평영	조선(노정숙)	만주	조선	만주	만주	
800미터 계영	만주	조선(정안경)				

출전: 『每日新報』, 1938년 8월 30일자, 2면.

20) 『중국체육년감』, 『성경시보』; 북경대학조선문화연구소, 『체육사』(北京: 民族出版社, 1998), 288쪽, 285쪽.

조선인 선수가 한 종목에서 1등, 세 종목에서 2등(한 종목은 릴레이), 두 종목에서 3등을 차지하였다. 수영이 일본인이 세계 무대에서 강세를 보인 종목임을 감안하면 수영에서 조선인 선수가 거둔 성적은 대단한 것이었다. 만주팀이 수영 종합 성적 76점 대 58점으로 승리를 차지했다.

테니스(硬球)는 28일 오후 1시에 대동공원 코트에서 개최되었다. 각 팀이 6명씩 출전하였는데 조선팀은 모두 일본인이었고, 만주팀은 일본인 3명, 러시아인 2명, 조선인 1명으로 이루어졌는데 조선팀이 7 대 6으로 승리를 거두었다. 결국 종합 성적으로는 만주팀이 우승하였다.<sup>21)</sup>

## 2. 제2회 조만대항종합경기대회

제2회 대회는 1939년 8월 18일부터 20일까지 3일간 경성운동장에서 개최되었다. 이 대회에서 수구, 야구, 농구, 축구, 탁구, 럭비, 체조, 승마 등의 종목이 추가되어 비로소 종합경기대회로서의 면모를 갖추었다. 이 대회의 경기 상황은 다음과 같았다.

〈표 9〉 제2회 조만대항종합경기대회 경기 상황

종목	일시	장소	우승팀
축구 1회전	18일 오후 5시	경성운동장	조선(4 : 1)
테니스 1회전	19일 오전		무승부(1 : 1)
여자농구 1회전	19일 오전 9시		조선(25: 19)
남자농구 1회전			조선(71: 24)
체조	19일 오후 1시		만주(1364.2 : 1152.4)
여자 배구	19일 오후 1시		조선(3 : 1)
남자 배구 1회전			조선(3 : 2)
육상	19일 오후 2시	경성운동장	조선
테니스 1회전			조선(1 : 0)
정구 1회전	19일 오후 3시		조선(6 : 1)
야구 1회전	19일 오후 4시 20분		만주(3 : 0)
럭비	19일 오후 6시 15분		조선(36 : 8)
탁구	19일 오후 2시 반	조선일보사강당	만주(4 : 3)
여자농구 2회전	20일 오전 9시	경성운동장	조선(33 : 16)
남자농구 2회전			조선(76 : 41)
승마	20일 오전 9시	경성승마구락부	조선
여자탁구	20일 오전 10시	조선일보사강당	조선(기권)
테니스 2회전	20일 오전 9시	경성운동장	만주(5 : 1)

21) 임영무, 『체육·스포츠 역사 교육 자료집』 (서울: 태근문화사, 2001), 263쪽.

〈표 9〉 제2회 조만대항종합경기대회 경기 상황(계속)

종목	일시	장소	우승팀
수영	20일 오후 1시 20분	경성운동장	
수구		경성운동장	조선(7 : 4)
축구 2회전	20일 오후 4시 10분	경성운동장	무승부(3: 3)
정구 2회전	20일 오후 1시 30분	경성운동장코트	조선(7 : 3)
남자배구			조선(3 : 2)
남자탁구	20일 오후 2시	조선일보사강당	만주(4 : 3)
야구 2회전	20일 오후 4시		만주(8 : 7)

출전: 『每日新報』, 1939년 8월 19일자, 3면; 8월 20일자, 2면; 8월 21일자, 2면; 8월 22일자, 2면.

먼저 육상경기의 성적을 보면 다음과 같았다. 조선팀은 대부분 조선인 선수로 구성되었으며, 이번에는 만주팀에도 조선인 선수가 많이 끼여 있었다.

〈표 10〉 제2회 조만종합경기대회 육상 종목 조선인 선수 성적

종목	1등	2등	3등	4등	5등	6등
100미터	조선(김유태)	조선(한운섭)	만주(윤경호)	조선(조선인)	만주	만주
800미터	만주(중국인)	조선	만주(방경하)	조선(조선인)	조선(조선인)	만주(홍영진)
포환던지기	만주(러시아인)	조선(조선인)	만주	조선(조선인)	조선(조선인)	만주
높이뛰기	조선(김원룡)	조선	만주	만주(김용호)	만주	조선(조선인)
고장애물	조선(이장완)	조선(이영복)	조선(소진남)	만주	만주	만주
200미터	조선(김유태)	조선(한운섭)	만주(윤경호)	조선(조선인)	만주	만주
1500미터	만주(중국인)	조선(유장춘)	만주(방경하)	조선(조선인)		
원반던지기	조선(박찬규)	만주	조선(백승욱)	만주	만주(러시아인)	조선(조선인)
400미터	조선(조선인)	조선(조선인)	만주(윤경호)	만주(김용호)	만주	조선(조선인)
멀리뛰기	만주(김용호)	조선(마종국)	만주	조선	만주	조선(조선인)
장대높이뛰기	조선	조선(소진남)	만주	조선	만주	만주
5000미터	만주(중국인)	조선(유장춘)	만주(중국인)	조선(조선인)	만주(방경하)	조선(조선인)
창던지기	만주(러시아인)	조선(이병찬)	조선(마종국)	조선(조선인)	만주	만주
삼단뛰기	만주(김용호)	조선(이영복)	조선(김홍근)	만주	조선(조선인)	만주
햄머던지기	만주	조선(백승욱)	조선(인경환)	조선(조선인)	만주	만주
스웨덴계주	조선(조선인 4명)	만주(윤경호)				

출전: 『每日新報』, 1939년 8월 20일자, 3면, 『中國體育年鑑』; 북경대학조선문화연구소, 『체육사』(北京: 民族出版社, 1998), 288-289쪽; 대한체육회, 전게서, 670-671쪽.

육상경기 17개 종목 가운데서 조선인 선수가 9개 종목에서 1등, 13개 종목에서 2등, 10개 종목에서 3등을 차지하였다. 이 가운데 만주팀의 조선인 선수가 2개 종목에 1등, 1개 종목에 2등, 5개 종목에 3등을 차지하였다. 100미터, 200미터, 400미터, 멀리뛰기, 삼단뛰기는 조선팀의 조선인 선수와 만주팀의 조선인 선수가 각축을 벌였다. 800미터와 5000미터 1등은 중국인 于希潤가 차지하였다.<sup>22)</sup> 육상 종합 성적을 보면 조선팀이 육상경기에서는 종합 성적 177점 대 142점으로 승리하였다.

구기 종목에서도 조선인 선수들의 활약이 펼쳐졌다. 먼저 조선과 만주의 조선인 사이에 인기가 높았으며 또한 좋은 성적을 거두던 축구를 보면, 조선팀은 모든 선수를 조선인으로 구성하였으며, 만주팀도 일본인 5-6명(축구 2회전의 경우는 5명)을 제외하고는 조선인이 주축을 이루었다.<sup>23)</sup> 만주팀의 조선인 선수로는 이치호, 홍정적, 박돌, 김실무 등이 있었다.<sup>24)</sup> 다음으로 농구를 보면 조선팀은 남자팀과 여자팀 모두 조선인으로 구성되었으며,<sup>25)</sup> 만주팀은 남자팀에는 이태용, 최길준 등이 있었으며, 여자팀은 모두 일본인으로 구성되었다.<sup>26)</sup>

탁구의 경우 조선여자팀은 한명을 제외하면 모두 조선인(19일)(단식 5명, 복식 2개조 가운데 단식 한 명만 일본인이었다), 만주남자팀은 모두 조선인, 만주여자팀은 모두 일본인(19일)으로 구성되었다. 만주남자팀이 4 대 3으로 승리를 거두었고 조선여자팀이 만주팀의 기권으로 승리를 거두었다.<sup>27)</sup> 다음으로 정구를 보면 조선팀과 만주팀에서 모두 조선인 선수가 출전했다. 정구 1회전의 예를 보면 조선팀은 복식 7개 조 가운데서 2개 조가 조선인으로만, 1개 조가 조선인과 일본인으로, 4개 조가 일본인으로만 이루어졌고, 만주팀은 1개 조씩만 일본인, 일본인과 조선인으로, 나머지 5개 조는 모두 조선인으로만 이루어졌다.<sup>28)</sup> 정구 2회전의 예를 보면 조선팀은 2개 복식조만 조선인과 일본인으로, 나머지 5개 조는 모두 조선인으로만 구성되었는데 만주팀은 1개 복식조만 조선인으로, 2개 복식조가 조선인과 일본인으로, 나머지 4개 조는 모두 일본인으로 구성되었다.<sup>29)</sup> 야구의 경우에는 투수의 명단만 확인할 수 있는데 1회전은 조선팀 2명, 만주팀 3명이 모두 일본인이었고, 2회전은 조선팀 2명, 만주팀 4명이 모두 일본인이었다.<sup>30)</sup> 이와 같이 조선인은 축구, 농구, 탁구, 정구는 강세를 보였지만 야구와 배구는 그렇지 못하였다.<sup>31)</sup>

22) 우회위는 단거리의 유장춘과 함께 일본과 중국이 각각 만주국과 중화민국 대표로 1932년 로스앤젤레스 올림픽 대회에 출전시키려고 한 선수였다. 우회위는 이 대회에서 햄머던지기에서 1등을 차지한 일본인 白石과 함께 다음 해에 거행된 동아경기대회에 출전하여 1등을 차지했다.

23) 『每日新報』, 1939년 8월 19일자, 3면; 22일자, 2면.

24) 북경대학조선문화연구소, 전게서, 74쪽. 그런데 매일신보를 보면 박돌은 축구 1회전에 출전했지만, 2회전에는 출전하지 않았고, 적어도 축구 1회전에 이치호 등은 출전하지 않았다.

25) 남자팀의 경우는 1회전에 조선인 선수 9명이 빈갈아 출전하고, 2회전에는 조선인 선수 한명이 더 가담하였으며, 여자팀의 경우는 1회전에 조선인 선수 7명이 출전하였고, 2회전에는 조선인 선수 2명이 더 가담하였다. 북경대학조선문화연구소, 전게서, 244쪽.

26) 『每日新報』, 1939년 8월 20일자(조간), 2면; 21일자, 2면. 그러나 오픈경기로 치르진 여자학생 경기에서 안동팀이 모 고녀와 37 대 35로, 그리고 휘명과 41 대 30으로 승리를 거두었다. 『每日新報』, 1939년 8월 20일자, 2면. 그리고 이 대회 후에 치른 친선경기에서 안동팀은 다시 숙명팀에 41 대 38, 이화팀에 37 대 35로 각각 승리를 거두었다. 이 안동팀은 거의 조선인 선수로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이는데, 안동팀의 이분주는 단독 득점이 가장 많은 선수였다. 『滿洲年鑑』(1939); 북경대학조선문화연구소, 전게서, 244-245쪽.

27) 『每日新報』, 1939년 8월 21일자, 2면; 22일자, 2면.

28) 『每日新報』, 1939년 8월 19일자, 3면.

29) 『每日新報』, 1939년 8월 20일자, 3면.

30) 『每日新報』, 1939년 8월 20일자, 3면; 22일자, 2면.

31) 만주의 조선인 사이에서는 배구가 거의 발전하지 못하였다. 북경대학조선문화연구소, 전게서, 201-202쪽.

마지막으로 수영을 보자. 수영에서의 조선인 선수의 성적은 다음과 같았다.

〈표 11〉 제2회 조만종합경기대회 수영 종목 조선인 선수 성적

	1등	2등	3등	4등	5등	6등	득점
300미터 혼합계영	만주	조선					4: 1
1500미터 자유형	조선	조선	조선 (지광호)	만주	만주	만주	6: 16
200미터 자유형	만주	조선	만주	조선	만주		13: 9
100미터 평영	만주	조선	조선	조선 (조선인)	만주	만주	10: 12
200미터 계영	만주	조선 (조선인 2명)					4: 1
일본배영	만주	만주	만주	조선	조선	조선	11: 6
400미터 자유형	조선	조선	조선	만주	만주	만주	8: 14
100미터 자유형	만주	만주	조선	만주	조선	조선	
200미터 평영	조선 (조선인)	만주	조선	만주	조선	만주 (조선인)	9: 13
800미터 계영	만주	조선					4: 1
수구	만주	조선					7: 4

출전: 『每日新報』, 1939년 8월 22일자, 2면.

수영은 미나미총독이 경기를 관람하였을 만큼 일본인에게 인기가 있었고 일본인 선수의 활약이 두드러진 종목이었다. 조선인 선수는 1등, 2등, 3등, 6등을 각각 한 종목에서 차지하는데 그쳤다. 이 가운데 6등은 만주팀의 조선인 선수가 차지하였다. 종합 성적을 보면 조선팀이 육상 등 10개 종목, 만주팀이 5개 종목을 각각 우승하여 조선팀이 2연패를 달성하였다.

### 3. 제3회 조만대항종합경기대회

제3회 대회는 1940년 9월 24일과 25일 이틀에 걸쳐 신경에서 개최되었다. 대회의 진행 상황은 다음과 같았다.

〈표 12〉 제3회 조만대항종합경기대회 일정

종목	일시	장소	우승팀
육상경기	24일 오후, 25일 오후 2시	남령경기장	만주
축구	24일 오후 1시 50분	남령경기장	만주
야구	24일 오후 2시	아옥공원야구장	만주
배구	24일 오후 2시 30분	아옥공원	만주(3: 0)

〈표 12〉 제3회 조만대항종합경기대회 일정(계속)

종목	일시	장소	우승팀
농구	24일 오후 4시 50분	아옥공원	중지
테니스	24일 오후 2시 30분	대동공원	중지
정구	24일 오후 2시 30분	대동공원	중지
탁구(경식)	24일 오후 4시 20분	백국소학교	조선(4: 2)
경마	25일 오전 10시 30분	제등부대	조선
체조	25일 오전 10시	신경상업강당	만주
력비	25일 오후 4시 30분	남령경기장	조선
탁구	25일 오후 1시	아옥공원	조선(24: 16)
수영	25일 오후 1시	대동공원	
테니스	25일 오후 3시	대동공원	만주(7: 2)
정구	25일 오후 1시	대동공원	조선
야구	25일 오후 3시 10분	아옥공원	만주(4: 1)
농구	25일 오후 4시	아옥공원	만주(55: 49)
수구	25일 오후 4시	대동공원	조선
배구	25일 오후 1시 15분	아옥공원	만주
축구	25일 오후 3시 10분	아옥공원구장	만주
탁구(연식)	25일 오후 1시 18분	백국소학교	조선

출전: 『滿鮮日報』 1940년 8월 24일자, 7면; 8월 27일자, 7면, 『每日新報』, 8월 27일자, 2면.

첫날 육상경기는 100미터, 400미터, 1500미터, 5000미터달리기를 실시하고 나머지 종목은 다음날 오후 2시에 속개하여 실시하였다. 육상 경기에서 조선인 선수의 성적은 다음과 같았다.

〈표 13〉 제3회 조만대항종합경기대회 육상 종목 조선인 선수 성적

종목	1등	2등	3등	4등	득점	
					조선	만주
100미터	만주	조선(한운섭)	만주	조선	2	6
400미터	조선(한운섭)	조선(백재정)				
1500미터			조선(양재원)			
800미터	만주	만주	조선	만주(중국인)		
고장애물	만주	만주	조선(이영복)	만주	2	8
높이뛰기	만주	만주	만주	조선(김원룡)	1.5	8.5
200미터	만주	조선(한운섭)	만주	조선(조선인)	4	6

<표 13> 제3회 조만대항종합경기대회 육상 종목 조선인 선수 성적(계속)

종목	1등	2등	3등	4등	득점	
					조선	만주
창던지기	조선(이병찬)	만주	만주	조선	5	5
멀리뛰기	만주	조선(김원룡)	조선(이영복)		5	4
원반던지기	조선(조선인)	조선(조선인)	만주	만주	7	3
5000미터	만주(방경하)	조선(한일진)	조선(유관홍)	조선(조선인)	6	4
1600미터계주	조선 (백재정,한운섭, 양재원, 노종현)	만주(중국인 1명)			4	1

출처: 『每日新報』, 1940년 8월 27일자, 2면; 대한체육회, 전개서, 671쪽.

주: 삼단뛰기에서 3등(조선, 이영복), 햄머던지기에서 1등(조선, 인경환)을 차지함. 한국체육백년사편찬회, 『韓國體育百年史』(서울: 신원문화사, 1981), 583쪽.<sup>32)</sup>

조선인 선수가 육상 12개(14개) 종목 중 1등을 5개(6개) 종목, 2등을 6개 종목, 3등을 4개(5개) 종목에서 각각 차지했다. 이 가운데 만주팀의 조선인은 5000미터에서만 입상하였다. 조선팀 입상자는 대부분 조선인이었다. 5000미터 달리기든 모두 조선인 선수가 입상하였고 1600미터계주의 조선팀은 모두 조선인으로 구성되었다. 1939년과 비교하여 만주팀의 조선인 선수의 입상자 수가 적었다. 이를 보면 만주팀의 선수 선발 과정에서 조선인에 대한 차별이 존재했던 것 같다. 그러나 왜 1939년과 1940년에 만주팀에서 조선인 선수 선발이 다르게 나타났을까? 이는 조만육상대항경기가 조선과 만주의 일본인 대 일본인의 지역대항경기가 아니라 조선과 만주의 조선인 대 조선인의 지역대항경기로 나타나는 것을 막기 위해 서였거나, 조선과 만주라는 식민지 지역(일본제국)의 표상이 아니라 조선인이라는 민족 표상으로 나타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였을 지도 모른다.

신문 기사로는 인쇄 상태가 나빠서 축구팀과 농구팀에 조선인 선수가 몇 명이 있었는지는 확인할 수 없다. 탁구(경식)를 보면 조선팀은 모두 조선인이고 만주팀은 복식조 중 한명이 조선인이었다.<sup>33)</sup> 탁구(연식) 경기는 조선팀은 조선인으로, 만주팀은 일본인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정구는 복식경기로 진행되었는데 둘째날 경기에서의 대진표를 보면 다음과 같았다.

<표 14> 제3회 조만대항종합경기대회 정구에서의 조선인 선수 성적

	조선팀	만주팀	우승
1회전(속개)	조선인 2명	일본인 2명	조선(4: 2)
	조선인 1명, 일본인 1명	일본인 2명	만주(4: 3)

32) 이 대한체육회가 발간한 책에서는 원반던지기 1등과 2등은 조선인 선수가 아니고, 3등이 인경환으로 기재되어 있다.

33) 이 대회가 개최되기 직전인 8월 13일에 제3회 조만정구대항경기가 개최되었는데, 만주팀에는 4명의 조선인 선수가 포함되어 있었다. 이들은 엄병률, 천대규, 장성균, 김문엽이었다. 『滿鮮日報』, 1940년 8월 13일자; 북경대학조선문화연구소, 전개서, 246쪽.

〈표 14〉 제3회 조만대항종합경기대회 정구에서의 조선인 선수 성적(계속)

	조선팀	만주팀	우승
2회전	일본인 2명	일본인 2명	조선(4: 1)
	조선인 1명, 일본인 1명	조선인 1명, 일본인 1명	조선(4: 2)
	조선인 2명	일본인 2명	만주(3: 4)
3회전	일본인 2명	일본인 2명	조선(4: 3)
	조선인 1명, 일본인 1명	일본인 2명	조선(4: 2)
4회전	일본인 2명	일본인 2명	조선(4: 2)

출처: 『每日新報』, 1940년 8월 27일자, 2면.

정구경기는 조선팀이 우승하였다. 조선팀은 조선인만으로 팀을 이룬 경우, 조선인과 일본인으로 팀을 이룬 경우, 일본으로만 팀을 이룬 경우가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만주팀은 조선인 선수가 한명 밖에 없었다.<sup>34)</sup> 둘째날에 수영, 체조, 육상(속개) 경기를 진행하였다. 수영은 오후 1시에 시작되었는데, 조선인 선수의 성적은 다음과 같이 나왔다.

〈표 15〉 제3회 조만대항종합경기대회 수영 종목 조선인 선수 성적

종목	1등	2등	3등	4등	5등	6등	득점	
							조선	만주
300미터혼계영	만주	조선 (조선인 1명)					2	4
1500미터자유형	조선 (조선인)	조선 (조선인)	만주	조선	만주		14	6
200미터자유형	만주	만주	만주	조선 (조선인)	조선 (조선인)	조선 (조선인)	6	15
50미터배영	만주	조선	만주	조선	조선		8	13
100미터평영	만주	조선 (조선인)	조선(조선인)	조선	만주	만주	12	9
200미터계영	만주	조선 (조선인 2명)					1	4
100미터배영	만주	만주	조선	만주	조선	조선	6	14

34) 이 조선인 선수는 金明善으로, 1940년 9월 16일, 봉천국제경기장에서 개최된 제3회 전만개인정구선수권대회에서 김문협과 같이 조를 이루어 박원순, 백국현 조를 6 대 5로 이기고 우승을 차지하였다. 『滿鮮日報』, 1940년 9월 20일자, 20면; 북경대학 조선문화연구소, 전계서, 247쪽. 이 경기는 조선인(김병갑)이 주최하였으며, 봉천, 무순, 철령 등 20여개 팀이 참가하였다. 이 경기는 조선인만 참가한 대회였다. 그러나 대회는 오전 10시에 시작하기로 되어 있었지만 실제로는 두 시간이나 늦게 시작되었다. 이는 정구가 조선인에게 그다지 인기가 없었음을 시사한다.

〈표 15〉 제3회 조만대항종합경기대회 수영 종목 조선인 선수 성적(계속)

종목	1등	2등	3등	4등	5등	6등	득점	
							조선	만주
400미터자유형	조선 (조선인)	만주	조선 (조선인)	만주	만주	조선	12	18
100미터자유형	만주	만주	조선 (조선인)	조선 (조선인)	만주	조선 (조선인)	8	13
200미터평영	조선 (조선인)	조선 (조선인)	조선	만주	만주	만주	15	6
800미터계영	만주	조선						

출처: 『每日新報』, 1940년 8월 27일자, 2면.

조선인 선수가 3개 종목에서 1등, 2등, 3등을 차지했다. 수영 종목에서 조선인 스타 선수가 등장하였는데 그는 400미터자유형과 1500미터자유형에서 2관왕을 차지한 지광호였다. 만주팀은 여전히 일본인 선수로만 구성되었다.

체조를 보면, 조선팀 10명 중 조선인 선수가 한 명이 있었다. 개인 득점은 만주팀이 1등에서 3등까지를 휩쓸고 조선팀이 4등에서 6등까지를 차지하여 단체 득점에서 만주팀이 승리를 거두었다. 조선팀의 조선인 선수 한 명은 맨손체조에서 3등, 개인 득점에서 5위를 차지하였는데, 이는 조선팀에서 두 번째로 좋은 성적이었다.<sup>35)</sup> 이 대회에서는 둘째날의 성적까지 합하여 종합 성적에서 만주팀이 13개 종목 가운데서 7개 종목을 제패하고, 88.5점(첫째날 52점, 둘째날 39.5점) 대 58.5점(첫째날 22점, 둘째날 36.5점)으로 우승을 차지했다. 조만대항종합경기대회는 “시국의 진전에 따라 다수 선수의 원정이 곤란하게 되어” 제4회 대회 이래 중지되게 되었다.<sup>36)</sup>

대신에 1941년에는 제1회 대륙철도체육대회가 개최되어, 조선 만주, 화북(교통)팀이 겨루었다. 이 대회는 6월 28일과 29일 이틀에 걸쳐 봉천운동장에서 개최되었다. 만주팀이 종합 성적 72점으로 우승을 거두었다. 조선팀은 종합 성적이 38점이었다. 이 대회에서 조선인 선수가 원반던지기 2등(김종준), 5000미터달리기 3등(오동우)을 차지하였다.<sup>37)</sup> 그리고 제2회 대회는 1942년 6월 6일과 7일에 용산종합철도경기장에서 개최되었는데 조선인 선수가 포환던지기 3등(김종준), 5000미터달리기 3등(오동우), 원반던지기 3등(김종준)을 차지하였다.<sup>38)</sup>

35) 체조 종목으로는 도마, 철봉, 맨손체조 등이 있었다. 그런데 만주체조팀이 왜 일본인만으로 구성되었을까? 다음의 진술을 보면 이 의문이 풀린다. “만주에서는 민족차별시정책으로 하여 일본인 외에는 체조경기를 진행할 수 없었다. 고작해야 일부 조선족 중학교에서 도수체조, 철봉, 조마경기를 진행하는 정도였다. 특히 간도지구에서는 체조경기대회를 한번도 개최하지 못하였다.” 북경대학교조선문화연구소, 전게서, 342-343쪽.

36) 滿洲帝國政府, 『滿洲建國十年史』(東京: 原書房, 1969), 905쪽.

37) 대한체육회, 전게서, 670쪽.

38) 『每日新報』, 1942년 6월 7일자, 2면, 6월 8일자, 2면; 대한체육회, 전게서, 670쪽.

## IV. 조만대항경기대회의 안과 밖

### 1. 대회의 규모

지금까지 조만대항경기대회에서의 조선인 선수의 성적을 살펴보았다. 그런데 조만대항경기대회에 참가한 선수단이 어떻게 선발되었으며, 선수단에서 조선인 선수의 비율이 어느 정도였는지를 확인하지는 못하였다. 지역대항경기대회라는 점에서 민족을 막론하고 우수한 선수를 선발하였을 것이지만 주최자인 체육단체의 의도나 또 그 배후에 있는 국가의 의도가 또한 작용하였으리라 짐작된다. 따라서 조선인 선수의 성적이 향상되면서 조선인 선수의 비율이 증가해 갔다.

단장, 부단장, 감독, 주장 등을 보면, 만주팀은 모두 일본인으로 구성되었으며, 조선팀은 제1회 조만종합경기대회의 신경대회 참가 선수단의 인솔자와 제3회 조만종합경기대회의 선수단 단장이 조선인이었고, 제3회 조만육상경기대회의 경우에 주장을 조선인이 맡았다. 이와 같이 제3회 조만육상경기대회가 개최되었던 1935년 이후가 되면 조선팀이 조선인 선수를 주축으로 구성되면서 조선인 임원이 등장하게 되었다.

그렇다면 조만대항경기대회의 규모는 어떠하였을까? 먼저 선수단을 보면, 조만종합경기대회의 경우에만 다음과 같이 선수단의 규모를 확인할 수 있다. 제1회 대회 조선팀(원정팀)은 육상 선수단의 규모는 확인할 수 없고, 신경대회의 참가팀인 수영, 정구, 테니스의 선수단으로, 인솔자가 1명, 수영과 정구 선수 각 15명, 테니스 선수 8명으로 모두 35명(원문대로)이었다. 제2회 대회 만주팀(원정팀)은 육상, 농구, 정구, 축구, 체조 선수단 95명, 나머지 종목의 선수단 110명으로 모두 205명의 대규모였다.<sup>39)</sup> 제3회 대회에서의 조선팀(원정팀)은 모두 208명이었다.

대회 개최 기간을 보면 제1회 조만대항육상경기대회, 제1회(봉천, 신경 양 대회를 합하여)와 제2회 조만대항종합경기대회가 3일간, 제3회 조만종합경기대회가 2일간, 나머지는 조만육상경기대회는 모두 1일(오후 반나절)이었다. 조만종합경기대회가 제3회 대회에 와서 축소된 것은 아니었다. 제1회 대회의 경우는 봉천과 신경에서 나누어서 경기를 개최하였기 때문이며, 제2회 대회의 경우는 첫날 오후에 축구 경기(제1회전)를 거행하였기 때문이었다. 한편 개최 시간을 보면, 제1회 조만대항육상경기대회가 오후 3시 30분, 제3회 조만육상경기대회가 오후 2시에 개최된 경우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대회는 오후 1시에 개최되었고, 종합경기대회에서도 스타디움에서 개최되는 육상경기는 개회식이 끝난 후인 오후에 개최되었다.

대회의 규모를 가늠해 보기 위해서는 관중의 수를 빼놓을 수 없다. 관중의 수를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는 없지만 운동장의 수용 능력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조만대항경기대회의 주경기장인 경성운동장과 남령운동장은 모두 조선과 만주에서 최대 규모를 자랑하던 운동장이었다. 1925년 10월에 개장된 경성운동장은 총면적이 22,700평으로 고시엔(甲子園)에 이어 일본에서 두 번째 규모이며,<sup>40)</sup> 육상경기장, 야구

39) 결단식에 참가한 만주국 선수단은 220여명이었고, 조선팀은 총감독 이하 230여명이었다. 이를 보면, 만주팀의 임원단이 15여명 정도였다. 그런데 입장식에 대한 한 신문의 보도를 보면 '500여명의 남녀선수'라고 하였다. 이를 보면 개최지의 선수단의 규모가 약간 더 컸던 듯하다.

40) 『京城日報』 1925년 5월 30일자; 손환, 「일제하 한국근대스포츠시설에 관한 연구-경성운동장을 중심으로-」, 『한국체육학회지』 42-4, 2003, 36쪽.

장, 정구장 등을 한 곳에 모아놓은 종합운동장이었다. 이러한 종합운동장은 동양에서는 메이지신궁경기장(神宮外苑)에 이어 두 번째였다.<sup>41)</sup> 그리고 총수용인원은 25,800명(육상경기장이 15,000명, 야구장이 7,000명, 정구장이 3,800명)이었다.<sup>42)</sup> 만주국의 국립남령경기장은 1933년에 국도건설국이 제1기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건설에 착수하여, 1934년에 육상경기장, 야구장, 농구장, 배구장, 축구장 등 가시시설을 완료하고, 제3회 만주국체육대회를 이곳에서 개최하였다. 당초 계획으로는 공원을 포함하여 총면적이 신 경특별시 면적의 3퍼센트를 차지할 정도로 광대하였다. 국도건설국은 1937년에 제1기 계획을 완료한 후 에 1939년에 다시 제2기 계획을 실시하였다.<sup>43)</sup>

## 2. 선수단의 일정

조만대항경기대회의 본 경기 일정은 이미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선수단이 도착한 후 본 경기까지, 그 리고 본 경기 후 귀국하기까지의 일정을 살펴보자.

〈표 16〉 조만대항경기대회 선수단 일정

대회	도착일	결단식	입장식	폐회식	귀국일
제1회 조만육상	3일전 아침		오후 3시 30분		
제2회 전경성전만철육상			오후 1시		
제3회 전경성전만철육상			오후 1시	오후 5시 50분	
제4회 전경성전만철육상			오후 1시		
제3회 조만육상	전날 오후 1시 30분		오후 2시		
제4회 조만육상			오후 1시		
제1회 조만종합(봉천대회)			오후 1시	오후 5시 30분	
제1회 조만종합(신경대회)	2일전 오후 4시 30분, 8시 40분				2일후 오후 1시 44분
제2회 조만종합	전날 오전	전날 아침, 오전 9시 30분	오후 12시 20분-1시	오후 6시	
제3회 조만종합	전날 오전과 오후	전날 오전			(당일 밤에 출발)

원정 선수단은 모두 철도를 통해서 이동했다. 도착일을 확인할 수 있는 예를 보면, 제1회 조만육상경 기대회가 3일전에 도착하여 오후 3시에 경기장에 나가서 연습을 했고, 제1회 조만종합경기대회(신경대 회)가 2일전이고, 나머지는 전날에 도착하였다.<sup>44)</sup> 제3회 조만종합경기대회의 경우를 보면 도착일 오전에

41) 立石隆司, 『朝鮮體育界の一般』, 『文教の朝鮮』, 29-10, 1929; 손환, 전계논문, 36쪽.

42) 『京城日報』, 1925년 10월 10일자; 손환, 전계논문, 38-39쪽.

43) 滿洲帝國政府, 『滿洲建國十年史』(東京: 原書房, 1969), 885-886쪽.

시내 견학 일정이 잡혀 있었지만 버스가 준비되지 못하여 취소되고, 오후에 간단한 연습에 참가했다.

원정팀의 도착 시간을 보면 제1회 조만종합경기대회(신경대회)에서 조선팀 선수들은 수영과 정구 선수단이 오후 4시 30분에, 그리고 봉천에서 시합을 마치고 온 테니스 선수단이 오후 8시 40분에 신경에 도착했다.<sup>45)</sup> 제1진 선수단에 인솔자(조선인) 1명이 있었다. 제2회 조만종합경기대회를 보면, 만주팀은 단장(일본인) 이하 임원은 오전 6시 30분에, 부단장(일본인)이 인솔하는 선수단 95명이 오전 7시 10분에, 그리고 감독(일본인)이 인솔하는 선수단 110명이 오전 9시 30분에 각각 경성역에 도착하였다.<sup>46)</sup> 그리고 제3회 조만종합경기대회를 보면, 조선팀은 제1반 95명(임원단원문은 본부] 11명을 포함하여)과 제2반 124명으로 나뉘어서 오전 7시 45분과 오후 3시에 각각 신경역에 도착하였으며, 대표단장인 고원훈(古元勳)이 오전 11시42분에 특급열차로 신경에 도착하였다.<sup>47)</sup> 이와 같이 선수들은 임원과는 달리 특급열차를 타지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경기 전날에야 도착하였다.<sup>48)</sup>

원정팀의 귀국 시간을 살펴보자. 제1회 조만대항육상경기대회는 경기 종료 다음날 밤에 경기 개최지인 대련을 출발하여 봉천을 구경하고 귀경할 예정이었고, 제1회 조만대항종합경기대회(신경대회)에서 조선팀이 경기 종료 2일 후 오후 1시 44분에 경성역에 도착하였고,<sup>49)</sup> 제3회 조만종합경기대회에서 조선팀 200여명이 경기 종료 당일 오후 11시 13분발과 11시 30분발 기차로 귀로에 올랐다.<sup>50)</sup> 제3회 조만종합경기대회에 참가한 조선팀은 단장을 위시하여 거의 조선인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이었지만 신경의 조선인 단체인 계림분회(鷄林分會, 공식 명칭은 수도협회회조선인분회)가 경기 종료 당일 저녁 8시에 일만군인회관에서 환영회를 주최해 주었는데 조선팀은 이 환영회를 마치고 바로 역으로 달려 간 것이다.<sup>51)</sup> 제3회 대회에서 조선팀 단장만 경기 종료 다음날 오전 8시에 ‘특급열차’로 귀국했다.<sup>52)</sup> 신경에서 경성까지 ‘보통열차’로 걸린 시간(하루 반나절)을 계산해 보면,<sup>53)</sup> 제1회 대회에서도 조선팀은 경기 종료 당일 저녁에 신경역을 출발하였음을 알 수 있다.

44) 원정팀이 도착하면 역에서 개최국팀 또는 대표의 환영을 받았다. 이를 제3회 조만육상경기대회와 제3회 조만종합경기대회(제1반)의 예에서 확인할 수 있다. 『조선중앙일보』, 8월 25일자(일요일), 2면.

45) 『每日新報』, 1938년 8월 27일자, 3면.

46) 『每日新報』, 1939년 8월 18일자(조간), 2면; 18일자(석간), 3면.

47) 이 특급열차의 이름은 노조미(望)였다. 그는 경성에서 신의주까지도 특급열차를 타고 왔을 것이다. 부산서 신의주간 특급열차 이름은 아카쓰키(暎)였다. 고원훈은 1910년에 일본메이지대학법과를 졸업한 후 1911년 조선총독부 경부를 거쳐 1913년 보성법률상업학교 교사, 1920년에는 교장을 역임하였다. 1920년에 조선체육회 발기인, 이사장으로 참가하고, 1921년 제2대 회장에 취임하였고, 1938년 조선체육협회가 조선체육회를 흡수하는 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였으며, 같은 해부터 해방 때까지 조선축구협회회장을 역임하였다. 역사문제연구소, 『(인물로 보는)친일과 역사』 (역사비평사, 1998), 262-268쪽.

48) 이는 예외적인 사례는 아니었다. 1932년에 중국 대표로 올림픽에 출전하게 된 만주 출신의 유장춘은 배로 태평양을 장장 25일간 항해한 끝에 경기 하루 전 겨우 로스앤젤레스에 도착할 수 있었다. 그는 다음날 황급히 경기장으로 나가 100미터와 200미터 경주에 참가했지만 먼 여행길의 피로에 지친 체력이 아직 회복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선경기에서 탈락하였다. 成都體育學院體育史研究室 編, 『中國近代體育史叢編』 (北京: 人民體育出版社, 1981), 141쪽; 許義雄 等, 황호옥 역, 『중국근대체육사상』 (서울: 黃典, 2000), 244쪽. 유장춘은 1913년에서 1934년까지 모두 18회에 걸쳐 개최된 화북운동회에서, 100m, 200미터, 400미터 신기록 보유자였다. 笹島恒輔, 임영무 역, 『중국체육사』 (서울: 태근문화사, 1994), 140-142쪽.

49) 『每日新報』, 1938년 8월 31일자, 3면.

50) 럭비와 야구 선수단은 남하하여 대련에 원정을 갔다. 『每日新報』 1940년 8월 27일자, 2면.

51) 럭비와 야구 선수단은 남하하여 대련에 원정을 갔다. 『每日新報』 1940년 8월 27일자, 2면.

52) 특급열차 명칭은 히카리(光)였다. 『滿鮮日報』 1940년 8월 26일자, 2면.

53) 한 구술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평안북도 박천군 인근의 맹중리역에서 신경역까지 꼬박 하루가 걸렸다. “맹중리 가서 아침 여섯 시에 타야, 그 이튿날 종일가고 하루 묵어서 그 이튿날 아침 여섯 시에야 신경에 닿는단 말이야... 히카리, 노조미, 이렇게 두 개의 급행차가 있는대요, 이것만이 직통할 수 있어요” 김석형 구술, 이향규 녹취·정리, 『나는 조선공산당원이오!』 (서울: 선인, 2001), 95-96쪽.

### 3. 국가 의례의 시연장

조만종합경기대회가 개최된 경성운동장과 남령운동장은 두 개의 '국가', 곧 조선총독부와 만주국(관동군사령부)이 각 국민을 가장 대대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시설물로 지어졌다. 이 시설물은 물론 각종 체육대회를 개최하기 위한 장소였다. 그러나 국가가 보여주려고 한 것은 경기 자체에만 그치지 않는다고 국가 자체를 현시하는 매체로 활용하고자 했다. 이 현시는 관중들에게 직접적으로 전달될 뿐만 아니라 소문으로 그리고 신문, 잡지, 라디오, 영화와 같은 대중 매체를 통해서 전달되었다.

그렇다면 다른 경기대회, 예를 들면 조선총독부의 조선신궁대회나 만주국의 만주국체육대회가 아니라 조만대항경기대회를 통해서 두 '국가'가 보여주려고 한 국가는 무엇이었을까? 조만육상경기대회가 조만종합경기대회로 발전한 것은 중일전쟁으로 조선과 만주의 위상이 높아졌기 때문이었다. 이제 중국을 통합하여 '동아'를 일본제국의 판도로 하기 위해서는 먼저 일본내지와 만주국, 일본내지와 조선과의 통합이 중요하였고, 또 이를 위해서는 조선과 만주국과의 통합이 중요하였기 때문이었다.<sup>54)</sup>

이러한 대회 조직자의 정치적 의도가 조만대항경기대회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조직되었는가를 살펴보자. 운동장 안에서 벌어진 본 경기 이외의 행사로는 입장식, 개회식, 폐회식 등이 있었다. 먼저 개회식 풍경을 살펴보자. 제1회 조만대항육상경기대회는 대련 시장의 인사, 심판장의 주의 사항 고지, 제2회 전경성전만철육상대항경기대회는 경성부윤(대회장)의 개회사, 제1회 조만대항종합경기대회(봉천대회)는 회장 인사, 양팀 주장 악수 교환과 같이, 간단한 절차로 진행되었다. 더욱이 제4회 전경성전만철육상대항경기대회는 강우로 입장식을 거행하지도 못하였다. 그런데 제2회 조만대항종합경기대회로 오면 다음과 같이 그 레퍼터리가 많아졌다.

먼저 결단식이 등장하였다. 경기 당일엔 양팀은 각각 조선신궁 앞에서 결단식을 거행하였다. 먼저 조선팀은 아침에 총감독(일본인) 이하 230여명이 국가 합창, 궁성요배, 1분간 묵념(默禱), 조선체육협회장(일본인) 인사, 주장(일본인) 선수대표선서, 황국신민서사 제창의 순서로 결단식을 진행하였고, 만주국 선수단 220여명은 오전 9시 30분에 단장(일본인)의 내정(來征) 보고(奉告)로 결단식을 시작하였다.<sup>55)</sup>

그리고 이 대회에서는 다른 대회와는 첫날 선수 일동 선서, 우리우가바의 합창, 심판장(일본인)의 경기 개시 선언을 한 후에 오후 5시에 축구전이 개막되었고, 둘째날 오전에 테니스와 여자농구 경기를 치른 후인 오후 12시 20분부터 1시까지 40분간 다음과 같은 순서로 개회식이 거행되었다. ① 500여명 남녀 선수가 철도국 브라스밴드의 연주에 맞추어서 입장(조선총독이 답례), ② 개회사, ③ 양국국가 합창, ④ 양국 국기 게양, ⑤ 궁성 요배, ⑥ 1분간 묵념, ⑦ 우승배 반환, ⑧ 대회장(일본인)의 개회사, ⑨ 조선총독부정무총감의 고사(법무국장 대독), ⑩ 만주국 단장(일본인) 인사, ⑪ 선수대표(조선팀 일본인 선수) 선서, ⑫ 양팀 인사, ⑬ 황국신민서사 제창. 식순에는 조선인에게만 황국신민서사까지 시연되었다. 그리고 폐회식이 20일 오후 6시에 경성운동장에서 거행되었다.<sup>56)</sup>

제3회 조만대항종합경기대회 개회식은 오후 12시 30분에 다음과 같은 순서로 거행되었다. ① 임원 정

54) 이들은 각각 '동아신질서', '日滿一德一心', '內鮮一體', '滿鮮(鮮滿)一如' 등으로 표현되었다.

55) 『每日新報』, 1939년 8월 19일자, 2면.

56) 『每日新報』, 1939년 8월 20일자, 2면.

렬, ② 선수 출장, ③ 개회 선언(대회총무인 일본인), ④ 일만양국기 게양, ⑤ 궁성·제궁 요배, ⑥ 신동아건설의 초석이 된 영령에 대한 감사의 묵도, ⑦ 대회총재(만주국 국무총리) 식사, ⑧ 조선 대표(고원훈 단장) 인사, ⑨ 조선측으로부터 우승배 반환, ⑩ 만주국팀 주장의 선수 선서, ⑪ 양팀 선수 상호인사(互禮) 및 기념수 교환, ⑫ 선수 퇴장. 식순에는 궁성(일본천황) 요배와 함께 제궁(만주국황제) 요배가 포함되었고, 황국신민서사가 빠졌다. 그리고 묵념의 대상을 ‘신동아 건설’의 초석이 된 영령이라고 구체적으로 표현하였다.

개회사 내용을 신문 보도에서 확인할 수는 없지만, ‘신동아 건설’이 포함되었음이 틀림없다. 이미 제1회 조만대항종합경기대회 직후에 국립남령종합운동장(신경대회, 1938년 8월 31일에서 9월 3일까지 4일간)과 봉천국제경기장(봉천대회, 9월 5일에서 6일까지 2일간)에서 나누어 개최된 일본, 만주국, 중화민국 간의 친선경기대회(일만화교환경기대회)의 개회식에서,<sup>57)</sup> 대회부총재(만주국 총무장관)가 한 대회사에 다음과 같이 ‘홍아’, ‘신동양’이라는 용어가 등장하였다.

‘홍아’ 청년의 하늘을 충격하는 의기를 전 세계에 보였다.(...) 친선[원문은 교환]대회는 실로 지금 건설 도상에 있는 ‘신동양’의 선구자고 그 속도이다[강조는 필자].<sup>58)</sup>

그런데 조만대항경기대회 일지에서 ‘동아신질서’라는 용어가 신문에 등장하는 하나의 사례가 있었다. 그것은 제3회 조만종합경기대회의 조선팀 단장인 고원훈이 신경역에 도착한 후에 출영한 기자에게 다음과 같이 조만종합경기대회의 의의를 설명한 부분이다.

‘동아신질서’의 건설이 진행되고 있는 이 때에 선만대항경기대회가 개최되는 것은 가장 의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청년의 역할은 항상 큰 것이지만, 이러한 비상시를 당해서는 더욱 크다. 이러한 때 선만의 청년들이 한마당에 모여 체육도를 통하여 친선을 두텁게 하는 동시에 체위를 향상시켜 선만일여의 정신에서 함께 신동아건설에 일꾼이 되려하는 것은 기쁜 일임에 틀림없다. 전 선수는 원기왕성하게 경기에 있어서는 선만친선을 촉진시키는 정신에서 싸울 줄 안다. 모쪼록 본대회가 최종의 미를 거두기를 바라다[강조는 필자].

위 기사를 보도한 만주의 한글 신문인 滿鮮日報는 조선팀(軍)을 “滿鮮一如의 정신을 이름답게 구현할 조선의 운동사절”이라고 표현하였다. 경기의 규모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커져서 1940년에 절정에 달하였듯이, 언론의 보도도 이와 걸음을 같이 하였다. 이는 이상하지 않았다. 대부분의 신문이 국가가 직접 경영하거나 국가의 정책과 논조를 같이 하였기 때문이었다.<sup>59)</sup>

57) 대회 종목에는 육상, 축구, 농구, 배구가 포함되었는데, 9월 1일 개최된 신경대회 육상경기에서 만주국팀의 조선인선수는 100미터 4등(한경운), 400미터 3등(장성현), 400미터 6등(김명관), 800미터 6등(김명관), 만미터 2등(방경하)의 성적을 거두었다. 『中國體育年鑑』; 북경대학조선문화연구소, 전제서, 289쪽.

58) 滿洲帝國政府, 『滿洲建國十年史』(東京: 原書房, 1969), 905쪽.

59) 언론은 국가와 논조가 아예 같거나 국가와 논조가 다르더라도 국가의 검열에 의해서 국가와 논조가 같도록 강제 당하였다. 그렇다고는 해도 신문이 국가의 정책과 논조를 일치한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국가 정책만 대변할 수는 없었다. 그럴 경우에는 이제는 독자에게 외면을 당하여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만주의 조선인 신문인 만선일보는 국가와 민족 사이에서 이중적인 역할을 하였다. 이에 대해서는 이동진, 「민족과 국민 사이: 1940년의 체육행사에서 나타나는 만주국, 조선인, 공동체」, 『만주연구』 1(2004)을 참고하라.

## V. 만주국 조선인 육상 선수의 성적

제2회 조만대항종합경기대회와는 달리 제3회 조만대항종합경기대회에서는 만주팀 조선인 선수의 성적이 좋지 못하였지만 그때까지 만주국에서 조선인 육상 선수들이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었다. 1932년부터 매년 가을에 성대항과 선수권전을 겸하여 개최된 만주국체육대회 조선인 육상 선수의 성적은 다음과 같았다.

〈표 17〉 만주국체육대회 조선인 육상 선수 성적

회수	연도	조선선수가 입상한 종목(등수, 이름, 지역)
제2회	1933년	110미터허들(1등, 임윤호, 관동주), 장대높이뛰기(1등, 임윤호)
제3회	1934년	400미터(3등, 황대선), 800미터(3등, 황대선), 110미터허들(2등, 임윤호), 장대높이뛰기(3등, 임윤호)
제4회	1935년	100미터(1등, 임윤호; 3등, 이지순, 신경; 5등, 최봉석), 200미터(3등, 이학수), 110미터허들(2등, 임윤호), 1500미터(4등, 정창규, 안동), 5000미터(4등, 이경원, 하얼빈; 6등, 정창규), 장대높이뛰기(5등, 이학수), 철추던지기(4등, 김봉구, 길림), 창던지기(5등, 김성구)
제5회	1936년	110미터허들(3등, 임윤호), 400미터허들(1등, 임윤호; 3등, 김원렬, 안동), 장대높이뛰기(3등, 임윤호)
제6회	1937년	200미터(1등, 윤경호, 신경), 100미터허들(3등, 김윤일, 안동), 400미터(2등, 김옥관, 대련; 3등, 김원렬; 5등, 김기백, 안동), 400미터(2등, 김원렬), 800미터(2등, 김옥관), 만미터(6등, 이경원, 빈강), 포환던지기(6등, 김윤일)
제7회	1938년	100미터(1등, 윤경호), 200미터(1등, 윤경호), 400미터계주(1등, 임윤호, 신경팀), 5000미터(2등, 방경하, 신경), 멀리뛰기(2등, 김응호, 안동), 삼단뛰기(3등, 김응호)
제8회	1939년	만미터(1등, 방경하), 멀리뛰기(1등, 김응호), 삼단뛰기(2등, 김응호)
제9회	1940년	100미터(1등, 윤경호), 800미터(3등, 최승후, 봉천; 4등, 서승렬, 용정; 5등, 조학현; 6등, 홍영진, 신경), 멀리뛰기(1등, 김응호), 5000미터(1등, 방경하; 3등, 김봉환, 봉천동광중학교; 5등, 김창운, 안동; 6등, 박종필, 봉천), 400미터계주(1등, 간도팀), 1500미터(4등, 홍영진), 만미터(1등, 방경하; 2등, 김봉환; 6등, 김창운), 삼단뛰기(1등, 김응호), 여자멀리뛰기(2등, 류선화, 봉천)
제10회	1941년	만미터(1등, 방경하; 2등, 김봉환), 800미터, 400미터허들(3등, 조학현), (남자 A조)200미터장애물(1등, 장명희, 안동1중; 3등, 지정호, 안동1중), 400미터(2등, 장호훈), 1500미터(1등, 김정길, 봉천동광중학교), 멀리뛰기(1등, 김명철, 안동)
제11회	1942년	5000미터(1등, 방경하; 2등, 김봉환), 만미터(1등, 방경하), 멀리뛰기(1등, 김중육), 삼단뛰기(1등, 김중육)

출전: 북경대학조선문화연구소, 『체육사』(北京: 民族出版社, 1998), 277-280쪽.

이들 선수 가운데는 조선에서 건너간 선수들이 있었다.<sup>60)</sup> 만주국 조선인 선수가 거둔 성적은 그 해 개최된 각종 경기에서 세운 기록을 토대로 발표한 육상최우수선수 명단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만주국

조선인 육상최우수선수의 명단은 다음과 같았다.

〈표 18〉 만주국 조선인 육상 최우수 선수

연도	종목(등수, 이름, 부서)
1934년	100미터(1등, 임윤호, 관동주; 9등, 김경삼, 신경), 200미터(3등, 임윤호; 6등, 강성운, 관동주; 10등, 이학수, 신경), 800미터(9등, 이용진, 신경), 110미터허들(1등, 임윤호, 관동주), 높이뛰기(2등, 임윤호; 3등, 이학수), 원반던지기(7등, 김봉구, 길림), 창던지기(10등, 허명률, 관동주)
1935년	400미터(1등, 최성현; 7등, 최갑순), 800미터(2등, 이정근; 8등, 김기현, 안동), 5000미터(3등, 김국봉, 봉천; 7등, 김용수, 안동), 만미터(5등, 이명실, 안동), 5종경기(1등, 장성현, 관동주)
1939년	100미터(1등, 윤경호, 신경), 200미터(1등, 윤경호), 400미터(1등, 윤경호), 800미터(2등, 방경하, 신경; 3등, 홍영진, 신경상업학교), 5000미터(2등, 방경하), 만미터(1등, 박경석, 신경실무학교; 2등, 방경하)
1940년	400미터(5등, 서승렬, 간도국민학교), 800미터(4등, 서승렬; 5등, 홍영진), 1500미터(4등, 방경하), 5000미터(2등, 방경하; 3등, 김봉환, 봉천동광중학교), 만미터(1등, 방경하; 2등, 김봉환; 4등, 김봉인), 400미터허들(1등, 장성현), 높이뛰기(4등, 김응호), 멀리뛰기(3등, 김응호; 4등, 장성현), 삼단뛰기(2등, 김응호)
1941년	400미터(2등, 서승렬), 800미터(3등, 홍영진), 1500미터(4등, 방경하; 5등, 홍영진), 5000미터(2등, 방경하; 4등, 김응호), 삼단뛰기(5등, 김응호)

출전: 『盛京時報』, 1935. 1. 27, 1937. 2. 4, 1939. 12. 21; 『滿洲年鑑』(1941), 460쪽; 북경대학조선문화연구소, 전게서, 285-288쪽.

이들 명단에 오른 조선인 선수가 각각 대표한 지역을 살펴보면 신경, 관동주, 안동, 봉천, 길림, 간도 등이었다. 특히 신경 대표로 나온 조선인 선수의 성적이 가장 좋았는데, 1939년 신경 육상 최우수 선수 명단을 보면, 윤경호가 100미터, 200미터, 400미터 1등, 최봉균(제1고중)이 400미터 3등, 홍영진(신경상업학교)이 800미터 4등, 1500미터 3등, 5000미터 4등, 방경하가 1500미터 2등, 5000미터 2등, 만미터 2등, 박경석(실무학교)이 만미터 1등을 각각 차지했다.<sup>61)</sup> 이들 중에 대부분은 앞서 보았듯이 만주국 육상 최우수 선수로도 뽑혔다. 곧 1939년 만주국의 육상 선수 중에는 신경 대표 선수가 가장 성적이 좋았으며, 이들은 대부분 조선인이었음을 알 수 있다.

조선인 육상 선수의 성적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임윤호, 윤경호, 서승렬, 방경하, 김봉환, 김응호 등이 100미터, 200미터, 400미터, 5000미터, 만미터, 멀리뛰기, 삼단뛰기 등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었다.<sup>62)</sup> 조선인 선수가 좋은 성적을 거둔 또 하나의 육상 종목이 있었다. 그것은 바로 조선인 선수가 세계 무대에서 가장 좋은 성적을 거둔 마라톤이었다. 조선인 선수가 만주국의 각종 마라톤대회에서 거둔 성적을 보면 다음과 같았다.

60) 황대선은 손기정의 신의주 고향 선배이고 양정고보 육상부에서 활동하였고, 조선신궁대회 800미터에서 우승을 하였다. 손기정, 전게서, 59쪽. 서승렬도 조선에서 용정(간도국민학교)에 유학을 간 학생이었다.

61) 『盛京時報』 1939. 12. 21; 북경대학조선문화연구소, 전게서, 286쪽.

62) 북경대학조선문화연구소, 전게서, 280쪽.

〈표 19〉 만주국 조선인 마라톤 선수 성적

연도	대회 명칭	성적
1935년	봉천단축마라톤대회	1등(김국봉), 6등(송진국)
1937년	신경단축마라톤대회	3등(정찬구)
1937년	하얼빈단축마라톤대회	1등(김광수), 2등(오정록), 5등(이성백), 6등(김상학)
1939년	대련마라톤대회	1등(김봉환)
1941년	봉천단축마라톤대회	1등(김봉환), 2등(박종필), 5등(조규찬), 6등(최동균)
1943년	대련마라톤대회	1등(박종필), 6등(이덕의)

출전: 『盛京時報』, 1935. 3. 12, 1937. 3. 14, 1937. 6. 12, 1941. 4. 6; 『滿洲年鑑』(1943), 349쪽; 북경대학조선문화연구소, 전게서, 280-282쪽.

1940년에 신경에서 개최된 건국기념대운동회 직장별분회대항경기대회에서 조선인팀(협화회조선인분회)이 '마라톤 조선'의 명성에 걸맞게 마라톤에서 우승을 거머쥐었다.<sup>63)</sup> 1935년부터 성경시보사(봉천)와 매일신문사(신경)가 매년 경길역전마라톤대회를 주최하였는데 이 대회에 조선인 선수들이 각 지역의 대표로 다수 참가하였다. 대회 조선인선수의 참가 상황은 다음과 같았다.<sup>64)</sup>

〈표 20〉 경길역전마라톤대회 조선인 선수 명단

명칭	연도	지역(조선인 선수)
제1회	1935년	대련(권태하)
제2회	1936년	길림(이성규, 이경진)
제3회	1937년	신경(예선 성적을 보면 엄빈 1등, 백창화 2등, 이용진 4등, 방경하 5등, 김수옥 9등), 봉천(김국봉, 박봉선), 하얼빈(김광수, 오정록), 길림(이병간, 김익수, 서병창, 황창수)
제4회	1938년	봉천(예선 성적을 보면 김봉환 3등, 김국봉 4등), 신경(방경하, 김인환)
제5회	1939년	신경(방경하, 김인환, 홍영진, 박경식, 엄빈), 길림(서병창, 이병간)
제6회	1940년	신경(방경하, 홍영진, 박경식, 후보선수로 김영식), 길림(마동춘, 노해산, 후보선수로 이병간), 봉천시(류관희, 채송철, 박윤식), 봉천성(이영존), 하얼빈시(김용수, 김익수)
제7회	1941년	길림(김의학), 봉천성(이영존, 최충후, 후보선수로 장영규), 하얼빈시(이경문, 김완주, 후보선수로 강락준), 봉천시(김봉환, 박종필, 류관희, 김덕모, 후보선수로 방순영, 최동순), 신경(방경하, 김영식, 조학현), 안동(김창운, 백봉선, 김창근, 조희봉, 이공순), 금주성(김효석), 통화(박리세, 조광명)
제8회	1942년	길림(김의학, 이공순), 안동(김창운, 조희봉), 신경(조학현, 이성철), 하얼빈(김익수), 안동(조선인선수 5명)

출전: 『體育年鑑』(1958); 북경대학조선문화연구소, 전게서, 274-277쪽.

63) 조선인팀은 2600미터단체경주, 줄다리기 등에서도 1등을 차지하여, 37개 참가 단체 가운데서 5위를 차지했다. 『滿鮮日報』 1940년 6월 6일자, 7면. 건국운동대회는 만주국에서 만주국체육대회와 함께 2대 체육행사로 1940년에는 600여개소에서 개최되었다. 滿洲帝國政府, 전게서, 886쪽.

64) 권태하는 단철, 이용진은 국도국, 김국봉은 봉천역에 근무하였고, 김봉환, 조규찬, 최동균, 채송철은 봉천동광중학교, 박경식은 신경실무학교에 재학하고 있었다.

제4회 대회에서 방경하가 구간 1등, 김인환 구간 2등, 제5회 대회에서 방경하, 김인환, 이병간이 구간 1등, 제6회 대회에서 방경하, 홍영진, 박경석이 구간 1등,<sup>65)</sup> 제7회와 제8회 대회에서 김의학이 구간 1등을 각각 차지하였다. 제8회와 제9회(1943년, 마지막 대회) 대회에서 조선인 선수가 주축을 이루었던 안동팀이 우승을 차지하였다.<sup>66)</sup>

지금까지 만주국 육상계를 사실상 조선인 선수가 석권하고 있었음을 살펴보았다. 만주국에서의 조선인 인구 비율을 고려하면 이처럼 조선인 선수가 좋은 성적을 거둔 것은 놀랄만한 일이었다.<sup>67)</sup> 조선과 마찬가지로 만주국에서도 중등학교가 조선인 선수를 배출하는 요람의 구실을 했다. 중등학교대항경기대회에서의 조선인 선수의 성적이 이 점을 잘 말해 준다. 1940년에 개최된 만주국중등학교 육상최고 기록 수립자를 보면, 조선인 선수가 400미터 1등(서승렬, 간도국민고등학교), 1500미터 1등(홍영진, 신경상업학교), 5000미터와 만미터 1등(김봉환, 봉천동광중학교)을 차지했다.<sup>68)</sup> 이들은 앞서 보았듯이 모두 1940년 만주국 최우수육상선수의 명단에도 올랐다. 그리고 1942년에는 제11회 만주국체육대회와 동시에 중등학교육상경기대회를 개최하였는데, 이 대회에서 조선인 선수가 5000미터에서 1등(김창운, 안동1중)을 차지했다.<sup>69)</sup>

특히 대도시의 조선인 중등학교가 조선인 육상 선수를 배출하였는데,<sup>70)</sup> 봉천동광중학교, 신경실무학교 등은 간도성을 제외한 지역에서 몇 안 되는 조선인 중등학교였다. 이들 학교에서 스포츠가 민족주의를 배양하는 중요한 수단이 되고 있었다.<sup>71)</sup> 1939년 9월 26일(아마도 추석)에 개최된 봉천동광중학교의 교내육상운동대회를 보면, 100미터, 농구, 배구, 400미터, 6인제 축구, 스웨덴계주, 유도, 검도, 200미터, 800미터계주, 씨름, 200미터저장에, 체조, 역도, 400미터계주, 집단체조, 럭비, 마라톤, 1500미터, 중량물 운반계주 등이 실시되었다.<sup>72)</sup> 이와 같이 만주국에서 조선인 선수의 활약이 두드러졌던 것은 조선인 사회에 민족주의가 존재했으며, 그 민족주의가 조선인 학교와 조선인 학교에서의 스포츠 민족주의로 결집되었기 때문이었다.

앞서 조만대항경기대회가 국가 의례의 시연장이었음을 살펴보았다. 그러나 조만대항경기대회에 조선인 선수와 관중은 국가 의례의 틈을 뚫고 나와서 또 다른 의례, 곧 민족 의례를 시연해 보였다. 그리고 이와 같이 민족을 표상하는 콘텍트로서의 조만대항경기대회는 소문과 언론 보도를 통해서 운동장에 오지

65) 이들이 1940년 건국기념대운동회의 조선인팀으로 출전하였을 것이다.  
66) 만주에서 조선인 마라톤 붐이 일어난 데에는 손기정 선수의 영향이 컸다. 손기정은 신의주 출신이었고 양정교보에 입학하기 전에 안동에 있는 조선인 상회 동익공사에서 근무한 적도 있었다. 따라서 손기정은 만주의 조선인과는 친근한 존재였다. 손기정이 1938년 8월에 봉천과 신경을 방문하여 마라톤강습회를 개최하였다. 『盛京時報』, 1938. 8. 13; 북경대학조선문화연구소, 전게서, 321쪽. 이때 손기정은 신경에서 마라톤 유망주 임태섭을 발굴해서 양정교보에 입학시켰다. 그러나 임태섭은 학교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신경으로 돌아갔으며 후에 길림에서 소학교교사가 되었다. 손기정, 전게서, 174-175쪽.  
67) 여기서는 육상에 대해서만 살펴보았지만, “1935년부터 만주의 조선인들이 축구, 자전거, 농구, 육상, 빙상스케트 등 종목에서 일본인들을 누르고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다.” 북경대학조선문화연구소, 전게서, 22쪽. 각 종목에서의 조선인 선수의 기록도 이 책에서 확인할 수 있다.  
68) 북경대학조선문화연구소, 전게서, 287쪽.  
69) 『滿洲年鑑』(1942); 북경대학조선문화연구소, 전게서, 280쪽.  
70) 서승렬은 조선에서 간도국민고등학교로 전학을 온 학생으로 이미 조선에서 육상을 배워 온 경우였다. 간도의 조선인 중등학교들은 축구에서는 만주국에서 여러 번 우승을 차지하였지만 육상에서는 그렇지 못하였다.  
71) 신경실무학교의 예에 대해서는 이동진, 「신경의 조선인: 신경실무학교를 사례로」, 한석정 등, 『만주, 동아시아 변동의 맥』(근간)을 참고하라.  
72) 북경대학조선문화연구소, 전게서, 283쪽.

많은 잠재적 관중에게 수용되었다. 다시 말하면 조만대항경기대회는 언론을 통해서 민주국 조선인에 의해서 광범위하게 민족 의례로서의 다시 시연되었다.

## VI. 결 론

조만대항경기대회는 일본인 체육단체가 주최하였고 그 배후에는 국가가 있었다. 조만대항경기대회가 속개된 1935년에 일만친선(원문은 交驩)경기대회와 조만대대항육상경기대회가 먼저 개최되었다. 일만친선경기대회는 2월 5일과 6일 이틀간 신경남령운동장과 봉천국제경기장에서, 그리고 조만대대항경기대회는 2월 16일에 대북제국대학경기장에서 각각 개최되었다.<sup>73)</sup> 일만친선경기대회는 만주국 황제의 방일을 기념한다는 명목으로 개최되었다.<sup>74)</sup> 조만대대항육상경기대회와 조만대항경기대회가 개최된 것도 같은 이유에서 일 것이다.

민주국이 참가한 최대의 국제경기였던 일만친선경기대회는 다시 괴뢰 중화민국을 포함하여 일만화친선경기대회로 발전하였다. 조선인 선수는 이 대회에도 일본팀, 만주팀, 심지어 중국팀 대표로 참가하였다. 1939년 9월 1일에서 3일까지 신경남령경기장에서 개최된 일만화친선경기대회를 보면 축구에서 만주팀에는 이치호, 홍정적, 박돌, 김실무(이들은 앞서 보았듯이 직전에 개최된 제2회 조만대항종합경기대회에도 참가했다), 일본팀에는 김용식, 이유형, 배종호, 김성간, 중국팀(원문은 중화팀)에는 이혜봉, 정용수,<sup>75)</sup> 그리고 농구에서 만주팀에 김응호, 이태용, 일본팀에 김성호가 그들이었다.<sup>76)</sup>

1940년에는 대일본체육협회, 일본기원2천6백년봉축회, 동경시가 주최한 동아경기대회(원문은 기원2천6백년봉축동아경기대회)가 개최되었다. 이 대회도 민주국 황제가 두 번째로 일본을 방문한 시기에 동경대회(6월 5일에서 9일까지, 신경외원)와 관서대회(6월 14일에서 16일까지, 신경외원[원문대료])로 나누어서 개최되었다. 이 대회에는 일본, 만주, 중국, 필리핀, 하와이의 5개팀이 참가하였는데 만주팀은 10개 종목에 215명 대표를 파견했다.

이 대회에서 만주팀으로 출전한 조선인 선수는 100미터 3등(엄세훈), 400미터 3등(서승렬), 800미터 2등(서승렬), 1500미터 2등(홍영진), 5000미터 1등(방경하)과 3등(박경석), 포환던지기, 원반던지기 4등(윤무병), 멀리뛰기 3등(김응호), 삼단뛰기 4등(김응호), 마라톤에서 1등(김봉환)과 4등(박종필)을 차지하였고,<sup>77)</sup> 일본팀으로 참가한 조선인 선수는 햄머던지기 3등(인경환, 보성전문), 삼단뛰기 1등(김원권, 慶應大學), 햄머던지기 3등(인경환, 경성부청[원문대료])을 차지하였다.<sup>78)</sup> 그리고 제2회 동아경기대회는 민주국 건국 10주년을 기념하여 1942년 8월 9일에서 10일까지 신경남령운동장에서 개최되었는데 만주팀으

73) 이 경기에서 조선팀의 조선인 선수는 100미터달리기 3등(김유택), 400미터달리기 2등(김종원), 1500미터달리기 1등(지영룡), 110미터장애물 1등(김환민), 2등(이장원), 만미터달리기 1등(지영룡), 2등(문운선), 멀리뛰기 3등(배준환), 높이뛰기 3등(이장환)이라는 좋은 성적을 거두었다. 대한체육회, 전게서, 670쪽.

74) 滿洲帝國政府, 전게서, 876-877쪽.

75) 북경대학교조선문화연구소, 전게서, 74쪽.

76) 만주팀이 일본팀에게 64 대 33으로, 중국팀에게 63 대 48로 모두 패배를 당하였다. 『滿洲年鑑』, 1939; 북경대학교조선문화연구소, 전게서, 245쪽.

77) 『中國體育年鑑』; 북경대학교조선문화연구소, 전게서, 289쪽. 만주국축구팀에는 조선인 선수가 5명이 포함되어 있었다. 같은 책, 75쪽.

78) 원문은 보전, 경대, 부청 등으로 기록되어 있다. 대한체육회, 전게서, 671쪽. 이 자료에서는 만주팀의 조선인 선수로는 김응호(만주)만 들고 그의 멀리뛰기 성적을 동경대회에서 6등, 관서대회에서 4등으로 기재했다.

로 출전한 조선인 선수는 멀리뛰기 1등(김원권), 삼단뛰기 1등(김원권), 원반던지기 1등(안영모, 법정대), 2등(반찬규, 법정대), 철추던지기 1등(인경환, 경성부청), 포환던지기 2등(안영모)을 차지했다.<sup>79)</sup>

만주국은 황제가 귀국하자마자 일본의 건국신을 모시는 건국신묘 설립에 착수하였고 같은 해 10월말에서 11월초까지 개최된 제11회 명치신궁체육대회에 참가하였다. 이제 조선과 만주의 조선인 선수는 명치신궁체육대회에서 각각 조선팀과 만주팀으로서 만날 수 있게 되었다.<sup>80)</sup> 이것이 조만대항종합경기대회가 더 이상 개최되지 않은 이유일 것이다.

이와 같이 조만대항경기를 비롯한 각종 지역대항경기대회의 배후에는 일본제국이라는 국가가 있었다. 조만대항경기대회는 일본제국이 자신의 식민지 지역을 통합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두 지역이 모두 일본제국의 지리에 속하며, 두 지역에 사는 주민도 일본제국의 신민이라는 것을 표상하게 하기 위해서 개최한 것이었다. 그리고 이러한 의도는 직접적으로는 명치신궁체육대회를 통해서 더 잘 수행될 수 있었다. 이 점에서 조만대항경기대회는 만주를 명치신궁체육대회에 편입하기까지의 과도적인 행사였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일본제국이 스포츠를 통해서 조선과 만주를 하나의 지역으로, 나아가 조선인과 중국인을 하나의 신민으로 편성하려고 했지만 조선과 만주는 일본내지와, 그리고 조선인과 중국인은 일본인과 달랐다. 조선인의 경우는 법적으로는 일본인이었지만 실제로는 내지인(日人)과 구별되는 반도인(鮮人)으로 구별되었다. 조선에서는 ‘내선일체’에 의해서 이러한 구분을 철폐하려는 움직임이 있었고, 만주국에서는 ‘오족협화’에 일본인과 조선인을 ‘日系’와 ‘鮮系’로 고쳐 부르기도 했지만(중국인은 ‘滿系’), 조선이 식민지인 한 민족이라는 구분이 사라질 수는 없었다. 따라서 조선인으로서의 조선인 선수의 스포츠 성적이 표상한 것은 ‘국가(일본)’이 아니라 ‘민족(조선)’이었다.

이는 만주의 조선인 관중이 일본인이 주축을 이루는 만주팀이 아니라 조선인이 주축을 이루는 조선팀을 응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 만주의 조선인 관중은 팀이라는 지역보다는 선수라는 민족에 따라서 응원을 하였다. 물론 지역이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어서 같은 조선인 선수인 경우에는 만주팀의 조선인 선수를 더 응원하였을 것이다. 이와 같이 조만대항경기대회에서 나타나는 공동체, 곧 선수, 관중, 임원, 언론, 소문이나 언론을 통해서 대회 소식을 알고 다시 이를 전달하는 잠재적 관중으로 이루어지는 공동체는 민족과 지역이라는 선을 따라서 분화되어 갔다. 그런데 이렇게 하여 형성된 공동체는 기억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재생산되었다. 다시 말하면 조만대항경기대회가 하나의 공동체를 표상하였으며, 다시 그 공동체가 조만대항경기대회를 ‘사회적 기억’으로 다시 표상하였다.

우리는 지금까지 조만대항경기대회가 두 축의 경기로서 진행되어 왔음을 보아왔다. 하나는 실제로 경기장 안에서 벌어진 스포츠 자체였고, 다른 하나는 경기장의 안과 밖에서 벌어진 스포츠를 통한 표상의 경기였다. 사실 조만대항경기대회가 관중을 끌어들이고, 조만대항경기에 대한 보도가 독자를 끌어들이 수 있었던 것은, 나아가 조만대항경기대회가 하나의 기억공동체를 만들었다고 하면 그것은 조만대항경기대회가 공동체를 표상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 표상의 경기는 ‘국가 표상’ 대 ‘민족 표상’이라는 두 축

79) 대한체육회, 전게서, 671쪽.

80) 만주국팀에 선발된 조선인 선수로는 1941년 10월에 개최된 제12회 명치신궁대회 만주국선수단에 방경하(만미터)와 김봉환(마라톤)이 있었다.

으로 나타났지만 다시 이들을 가로지르는 표상들이 있었고, 개인에 따라 그 표상하는 공동체가 다를 수 있었다. 그러나 조만대항경기에서 기록으로 남아 있는 조선인 선수, 특히 만주(국)팀의 조선인 선수의 성적은 조만대항경기대회가 민족이라는 공동체를 표상하였다고 할 때 가장 잘 설명될 수 있었다.

조만대항경기대회에서 조선팀과 만주팀에 속하는 일본인 선수의 성적도 좋았다. 일본은 사실 육상 강국이었다.<sup>81)</sup> 만약 동경올림픽대회가 일본기원2천6백주년인 해인 1940년에 예정대로 개최되었으면 일본인 선수가 좋은 성적을 거두었을 것이다. 그러나 조만대항경기대회의 경우만 보면 일본인으로서의 굳이 이 대회를 통해서 민족을 표상해야 할 이유가 없었다. 일본인은 이미 일본내지에서의 일본인 선수의 성적으로도 '제국'을 표상하기에 충분하였다. 더욱이 조만대항경기대회에서 일본인 선수의 성적이 일본인의 우월성을 표상하는 데는 도움이 되겠지만 지역 통합이라는 목적을 이룰 수는 없었다.

조만대항경기대회를 통해서 굳이 민족을 표상할 이유가 없기는 중국인도 마찬가지였다. 만주국의 중국인은 조선과는 달리 스포츠가 아니고서도 민족을 표상할 수 있는 다른 콘텐츠를 찾을 수 있었다. 무엇보다도 중국과 일본과의 전쟁 자체가 민족을 표상하기에 충분하였다. 더욱이 중국인이 스포츠 친선의 대상 지역을 찾는다고 하면 그것은 조선(만주의 조선인에게는 조선내지)이 아니라 중국내지였다.

이와 같이 '제국'의 지배 민족인 일본인과 내지에서 그 '제국'과 전쟁을 수행하고 있는 다수 민족인 중국인과는 달리, 이들 사이에 끼여 있었던 만주국의 조선인에게야말로 스포츠는 민족을 표상을 해 줄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콘텐츠로 자리 잡았다. 곧 만주의 조선인 선수와 관중이 이루는 스포츠 공동체가 조선인 민족 공동체를 '상상'할 수 있게 해 주었다.<sup>82)</sup>

이 과정에서 언론, 특히 신문이 매우 중요한 구실을 하였다. 스포츠의 표상 기능을 가장 잘 이용하고, 또 이를 확산시켜 간 것이 신문이었다. 이 때문에 이 시기에 자주 신문사가 경쟁적으로 각종 경기대회를 주최하거나 후원하였다. 신문은 경기장 안의 공동체와 경기장 밖의 공동체를 매개시켜 주었다. 다시 말하면 신문은 경기장 공동체를 경기장 밖의 공동체로 확장시켰다. 그 극적인 사례가 손기정 선수의 베를린 올림픽 금메달 수상을 보도한 동아일보 기사였다. 이 소식은 국내의 조선인에게는 신문 보도를 통해서야 전달되었는데, 신문은 사실만이 아니라 사실이 무엇을 표상하는가를 보도했다. 잘 아는 대로 동아일보는 손기정 선수의 사진에서 일장기를 삭제함으로써 일장기로 나타나는 '마라톤 일본(국가 표상)'이 아니라 일장기가 삭제된 자리에 나타나는 '마라톤 조선(민족 표상)'을 표상하였다. 이와 같이 스포츠는 다시 신문이라는 매체를 통해서 '표상의 표상'으로 나타났다.

81) 일본은 1928년과 1935년에 각각 파리와 부다페스트에서 개최된 제3회와 제6회 세계육상학생선수권대회에서 3위를 차지하였고, 1932년 로스앤젤레스 올림픽에서 35명의 육상 선수를 파견하여 5위(삼단뛰기에서 금메달)를 차지하였다. 川村英男・花野豊子, 『日本體育史』(東京: 遼遙書院, 1981), 203-205쪽.

82) 이를 실감할 수 있는 하나의 사례가 있었다. 그것은 1936년 베를린 올림픽에서 손기정과 남승룡 선수가 금메달과 동메달을 딴 일이었다. 스포츠가 어떻게 민족을 표상하였는가 하는 것은 당시 동아일보 기자였던 심훈이 쓴 다음의 글에서 잘 나타나 있다. "오오 나는 외치고 싶다. 마이크를 쥐어잡고 전 세계의 인류를 향해서 외치고 싶다. <인제도 인제도 너희들은 우리를 약한 족속이라고 부를 터이니>" 손기정, 전계서, 142쪽.

---

---

참 고 문 헌

---

---

- 『동아일보』 .  
『滿鮮日報』 .  
『每日新報』 .  
『京城日報』 .  
『조선중앙일보』 .  
『盛京時報』 .
- 김석형 구술, 이향규 녹취·정리, 『나는 조선공산당원이오!』 (서울: 선인, 2001). 95-96쪽.  
대한체육회, 『대한체육회사』, 1965.  
滿洲帝國政府, 『滿洲建國十年史』, 東京: 原書房, 1969.  
滿洲帝國政府, 『滿洲建國十年史』, 東京: 原書房, 1969.  
북경대학조선문화연구소, 『체육사』, 북경: 민족출판사, 1998.  
笹島恒輔, 임영무 역, 『中國體育史』, 서울: 태근문화사, 1994(1991).  
손기정, 『나의 조국 나의 마라톤』, 한국일보출판국, 1983.  
손환, 「일제하 한국근대스포츠시설에 관한 연구-경성운동장을 중심으로-」, 『한국체육학회지』 42-4, 2003,  
野口源三郎, 『野口源三郎遺稿集』, 不昧堂書店, 1969.  
역사문제연구소, 『(인물로 보는)친일과 역사』, 역사비평사, 1998.  
이동진, 「민족과 국민 사이: 1940년의 체육행사에서 나타나는 만주국, 조선인, 공동체」, 『만주연구』 1, 2004.  
이학래 외, 『한국체육사』, 지식산업사, 1994.  
이학래, 『한국근대체육사연구』, 지식산업사, 1990.  
임영무, 『체육·스포츠 역사 교육 자료집』, 서울: 태근문화사, 2001.  
林革友·金容哲, 『중국 연변조선족 자치주 체육활동의 역사와 현황』, 대경, 1996.  
竹之下休藏, 『體育五十年』, 時事通信社, 1956.  
中村敏雄 外, 『スポ-ツナショナリズム』, 東京: 大修館書店, 1978.  
川村英男·花野豊子, 『日本體育史』, 東京: 逍遙書院, 1981.  
한국체육백년사편찬회, 『韓國體育百年史』, 신원문화사, 1981.  
허복, 『올림픽競技史』, 동양문화사, 1982.  
許義雄 等, 황호숙 역, 『中國近代體育思想』, 서울: 黃典, 2000.

## Sports as Representation: The Case of 'Korea-Manchurian Game'

Lee Dongjin(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Korean Chosun vs Japanese Manchukuo sports games were held first as an athletic meeting and later as all-around events. At first, Korean athletes participated for Chosun team, but later there were some Korean athletes wearing the uniform of Manchurian team. In the last Chosun-Manchukuo sports matches held in 1940, the Chosun team consisted of almost Koreans. This study examined how the scores of Korean athletes had improved. The reason for this was suggested as follows: Koreans, whose nation was colonized by Japan at that time, could not use various indexes representing a country as those of its community. In this situation, the scores of Korean players were the index representing the Korean community. This was how a sports community was formed among Korean athletes and Korean spectators, developing sports nationalism. In this context, Korean athletes gradually got good marks.

Chosun vs Manchukuo sports matches progressed in two ways: one as sports games, the other as representation. Whereas the state(the organizational committee) tried to make the sports games represent 'state(Japan Empire)', the Korean community wanted it to represent 'nation(Korean People)'. These games were folded again by newspapers which delivered the meanings of sports matches inside the stadiums to the outside. For the newspapers, which required the support of readers, had to convey the symbols of sports to the readers as they wanted, while making propaganda for the state and trying to avoid the censorship. This process was not simple conveyance, but 'the representation of representation'. In this way, sports community which was formed inside the stadiums spread to the outside, continuing to be reproduced as 'social memory'.

Keywords: 표상, 스포츠, 朝滿對抗競技大會, 만주, 조선인, 만주국, 국가 의례